

# 문 대통령, 존슨바이든과 나란히...G7서 확인된 달라진 한국 위상

# [칼럼] 국민이 알아야 할 20대 대통령의 조건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쥘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사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청와대)

## 기념촬영 맨 앞줄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사이 첫 회의때도 존슨 총리 오른쪽 옆 중앙 상석에 앉아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실제 영국 콘월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사진을 보면 청와대 설명처럼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각국 정상들의 기념촬영 사진을 보면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첫 번째 줄 가운데 섰다. 그리고 존슨 총리 바로 옆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옆 오른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이 맨 앞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의 사이에 선 것이고, 참고로 스가 일본 총리는 두 번째 줄 가장 왼쪽 자리였다. 같은날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논

의하는 첫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오른쪽 옆, 중앙 상석에 앉았다. 존슨 총리 왼쪽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국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깨에 잔뜩 힘을 실어 준 결과”라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한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뤘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임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임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임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임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임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경상남도, 부울경 청년이 함께 만드는 부울경 메가시티



경상남도(청년정책추진단)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지역 격차와 청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울산·경남 시도별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를 포함한 전국의 청년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부산·울산·경남 청년들의 교류회를 시작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현황 파악하기 ▲함께 생각하기(온·오프라인 분입 토론) ▲생각 공유하기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황 파악하기 순서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 강연을 들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진형의 대표의 발제를 통해 ‘지역 격차와 청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함께 생각하기 순서에서는 소통설계자(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따의 진형 하에 지역격차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메가시티가 어떻게 하면 도시별 단점 보완과 장점 강화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청년의 삶이 반영된 메가시티와 관련한 대안은 무엇인지 순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부울경 청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논의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한 청년 의견은 3개 시도의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으며 향후 시도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왜 청년인가?”에 대해 “그 사회가 지속가능한가 아니가를 보여주는 것이 청년의 삶”이라며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생존의 문제로 바뀌

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문제에 있어 ‘공정’을 많이 얘기한다”면서 “지역격차, 빈부격차 등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공정’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의 삶, 우리 사회공정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경사노위 예하 청년위원회의 지역순회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청년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의제의 발굴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계층별 위원회인 청년위원회를 지난해 8월 4일 발족했으며 2020년 8월 인천 국제공화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 2021년 3월 광주형 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광용기자

# 완도 청산도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토종 코끼리마늘 꽃



덕암/김균식

# 충남도-15개 시군, 하나된 충남의 힘으로 충남민항유치 성공으로 이끌 것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혁신 도시 지정, 서해선 KTX직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으로 손꼽히는 충남민항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1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논산시),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정계·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40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합기선 한서대 학교 총장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하며,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성일종 국회의원,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황전순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장, 황준식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위원장, 박찬주 국민의힘 충청남도당 위원장, 유태식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논산시)은 “충남은 대한민국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자 명실상

부한 환황해의 중심으로 향후 경제·문화·관광 등의 측면에서 매우 발전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충남민항은 충청남·북도는 물론 대전·세종에 이르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항공교통서비스이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충남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KTX고속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굵직한 성과를 이뤄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충남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민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민항은 220만 도민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사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번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충남민항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길을 당당히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정호 서산시장은 “충남



민항은 국토부 주관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32로 충분히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환황해권 관광개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늦춰질 이유가 없다”며 “서산민항의 조기 추진 및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충남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향후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는 정부의 제6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목표로 중앙 부처, 국회 등 각 계각층에 충남민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 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정지역위원장)은 10일 용인플랫폼 시티 부지 내 경부고속도로와 GTX 용인역을 잇는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인시는 8일 '경부고속도로-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용인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진행 된다. 주요 내용은 환승정류장 일대 교통과 환승시설의 이용수요 예측, 환승시설의 규모, 배치 등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워질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기흥구 보정동 구성역 일원 플랫폼시티 부지 4만3870㎡에 연면적 33만9863㎡ 규모로 건립된다. 플랫폼시티 내

GTX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GTX에서 고속도로, 시외·광역·고속버스, 구성역(분당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수요 3만6000명이 예상되며 GTX 환승센터 30곳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연계해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 이용자들이 GTX 역사로 바로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GTX용인역 복합 환승센터는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센터로 용인플랫폼시티를 경기 남부의 교통허브로 발돋움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삼척시의회, 나라사랑 독도지킴이 릴레이 챌린지 시작

이정훈 삼척시의장은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나라사랑, 독도지킴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번 “나라사랑, 독도지킴이 챌린지”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나라사랑 정신 고취 및 독도 수호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캠페인이다.

나라사랑, 독도지킴이 챌린지는 독도 수호 관련 견해, 구호, 사진 등을 SNS 등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정훈 삼척시의장은 이번 챌린지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를 우리나라 역사에 편입시킨 동해왕 이사부의 진취적인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공공배달 앱 활성화 지원 규정,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수원시의회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배달 플랫폼 이용자에게 배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수원시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원에 소재한 4,300여 개의 공공배달 앱 가맹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 고영인 의원,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의 효율적 도입으로 저출산률 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오늘 10일 국회에서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등 영아기 집중투자의 필요성과 영아기 집중투자가 저출산률 완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우려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 아래 보육에서의 평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아수당 도입으로 전문보육기관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과 부모양육이 대부분인 영아기에 부모지원의 필요성 및 효율적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추가 입법 등의 정황등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했으며, 조선경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과장·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회 위원장·홍승령 보



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아기(0-1세) 아동양육의 부모권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보안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0-1세 영아기 50만원의 수당은 가정양육 기조의 강화로 여성노동시장 참여 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교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영유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만남 이용권 도입이 초저출산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저

출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방안임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경 과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유해미 박사는 ‘우리나라 영아수당의 특수성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으며, 박명하 위원장은 ‘영아기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의 필요성’, 홍승령 과장은 ‘영아기 집중투자의 기대효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오영훈 의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고영인·서영석·인재근·양정숙 의원과 양승일 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민주당지도부에 균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 지원 요청

## 송 지사, 도정 주요 현안 및 2022년 국가예산 반영 건의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12명의 시도지사와 함께 민생경제, 균형발전, 재정분권, 국가예산 등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부는 계획대로 9월말이면 3,600만명의 백신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지역의 방역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과 예산제도 개선, 재정분권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예산표준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나후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예산 평가 체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광역시가 없는 지

역을 세분화하고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의 상향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상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 교통망 구축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전북 등 감소도시권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전주~김천간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국도'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이어 재정분권으로 불리해지는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 재

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 후에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하진 도지사는 도정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당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입법 과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청사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농생명,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과 지방정부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

# 여주시 권오봉 시장,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총력 '결의'

## 권오봉 여주시장이 11일 여수세

COP28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던 권오봉 여주시장이 11일 여수세게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OP28 유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총력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훈 운영위원장, 정석만 집행위원장 등 COP28유치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COP28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국내 도시 간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유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별화된 탄소중립 실천방안과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COP28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남해안남중권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유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사냥꾼 활동' 확

대, COP28 유치 서명운동 및 릴레이 퍼포먼스,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우리 여수와 남해안남중권 시·군민들의 지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COP28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시에서도 대정부 활동은 물론 모든 역할을 동원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28은 2023년 11월에 열리며, 개최국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시·군은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고성) 총 12개 시·군으로,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남술기자



# 이재명, 도의회 건교위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해야" 재차 당부

## 이재명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 상식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 집행해야"

### 한 발짝 더 나아가 심도 있는 논의 이뤄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교통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지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에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가 말고 표준품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나 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건교위 위원 14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수기자

#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동 헴프특구 간담회 방문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월 10일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열린 '헴프 특구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최초 헴프 산업과 실증착수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박성수 안동시 부시장, 한진관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희천 특구단장, 특구사업 주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실증사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헴프 특구 간담회에 나선 박성수 안동시 부시장은 권철승 장관에게 바이오·백신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백신 소재 국산화 등 백신주권확보를 강조하며, 글로벌 백신 허브를 통해 21개 특구사업자가 클러스터화 되어 R&D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그린디지털혁신거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바이오·백신 패스

트 트랙 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한편으로,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 원도심 상권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 등을 테마형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수 안동시 부시장은 "헴프 특구 지정으로, 대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딛고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게 됐다."라며 "헴프 바이오 신산업 개척에 이르기까지 법적, 기술적 난관이 많겠지만 모든 특구 사업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열정과 패기로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권철승 장관은 "대마 속 유용물질을 활용한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기부에서는 헴프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강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대구·경북,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앞두고 상생협력의 신발전 고쳐맨다

##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 회동,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공동 협력키로

대구·경북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앞두고 시·도가 공동 협력하는 등 행정통합에 앞서 문화, 경제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경상북도는 6월 10일 11시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만나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국책사업 유치 공동협력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도 함께 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최근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 사업인 「(가칭)국립이건희미술관 유치(문화체육관광부 주관)」와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지역이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로 윈-윈 한다는 데 대구·경북·포항·경주가 견해를 같이하고 향후 모든 과정에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경북이 각자 가진 장점을 살려 ▲이건희미술관은 삼성사의 뿌리가 있는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이 참여하고, ▲K-바이오랩허브는 경북의 과학·연구·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구가 공

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의 문화·예술과 대구의 첨단의료산업 역량을 교차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경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고, 좀 더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두 사업에 공동추진TF를 만들고 대구·경북이 상호 공무원을 직접 파견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영기기자

# 동해시의회,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방의회 선정!

동해시의회가 2021년도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14개 의회가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지방의회 중에서는 동해시의회가 유일하다.

이로써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위임법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의원발의 조례의 품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하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 의원의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광진구, 여성 1인가구 비중 51.6% '안심홈세트' 지원

광진구가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 조성을 위해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광진구 전체 1인가구는 현재(21.3월 기준) 78,590가구이며, 이중 여성 1인가구는 40,571가구로 총 5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와 협업하여 여성 대상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광진구 내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전·월세로 거주하는 1인 여성 가구이며,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물품은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긴급벨 ▲문열림센서 ▲가정용CCTV ▲스마트초인종

등 총 5가지이며, 최대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는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주고, '휴대용 긴급벨'은 비상 시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경찰(112)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문열림센서'는 외부로부터 문열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울리고, '가정용 CCTV'로는 외부 침입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스마트 초인종'은 고화질 보안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돼 문 밖에 낯선 사람이 서 있거나 벨을 누르면 촬영 중인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송한다.

신청은 6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진구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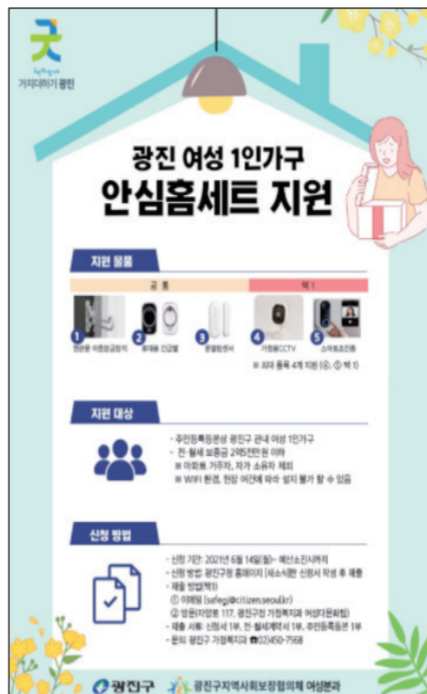
정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여성 1인가구 229명에게 지원을 완료한 바 있다.

김성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여성의 안심 생활망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전 체감도까지 함께 높이고자 한다"라며 "구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는 올해 광진경찰서와 주거침입 범죄 피해자 긴급 지원 협약을 맺어 여성 1인가구의 안심 생활망 구축과 안전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성원기자



# 서울시, 세상에서 가장 큰 시집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민 창작' 서울시, 세상에서 가장 큰 시집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민 창작'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바쁜 일상에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할 새로운 시(詩)를 찾는다. 6월 15일~7월 8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민 창작 시 공모'를 통해 200편 내외의 시를 선정해 지하철 314개역에 게시할 계획이다.

'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詩)'는 2011년부터 시민 공모를 통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는 작품들을 게시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3,418편의 시가 접수되어 2019년 2,152편에 비해 접수율이 68% 증가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평화로운 서울의 일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작품을 기다린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시는 지하철 1~9호선, 분당선 등 314개역의 승강장 안전문에 게시될 예정이다.

작품 응모는 남녀노소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내 손안에 서울'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

에서 응모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게시되는 '시민 창작 시(詩)'는 문학 평론가,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당선작은 8월 31일 '내 손안에 서울' 및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오는 10월부터 승강장 안전문에 부착된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민 창작 시'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공모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원근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민 창작 시'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공모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을 담은 시들을 게시해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린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 강동구, 강동생활문화센터 예감(藝感) 운영

강동구는 예술을 매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실현하는 문화예술거점 공간인 강동생활문화센터 예감(藝感)을 구청면로에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동생활문화센터 예감(藝感)은 강동구에 처음으로 생긴 생활문화센터로서 2층은 지역 예술인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회의 공간, 지하에는 연습실이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생활 SOC 시설로 지역 문화 주체인 생활문화동아리 및 지역 예술인이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 거점 공간이다.

기존 다른 지자체에 설립된 주민이용 및 대관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 활동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강의 프로그램 및 문화기획력 있는 프로그램들을 점차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6월부터 강동문화재단과 연계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가오는 7월에는 지

역주민의 문화적 역할 강화를 위한 문화 기획 강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구청면로 축제 등을 기획하는 등 지역 예술인 및 주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강동형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 대관의 형태로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층의 커뮤니티룸과 어울림 공간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임 및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지하에 위치한 연습실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과 일부 방음시설을 갖추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이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인 강동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문화도시 강동을 만드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는 구민의 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구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 금천구, 서울 외 지역 중·고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지원

금천구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외국인 학생의 경우 체류지를 금천구로 정한 경우), 서울시 외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신청방법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단,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30만원)으로 지급된다. 금천구 거주 여부와 타 자치단체 지원금 중복수급 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일 다음 달 중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상품권이 발송된다.

신청인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교복과 체육복, 등교에 필요

한 일상의류,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금천구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중·고 신입생이 서울시 외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는 경우 어느 곳에서도 입학준비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중복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타 시·도 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명의 학생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 금천구, 청년들의 치열한 구직활동에 심포를!



금천구가 휴식기 청년들의 주체적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취업포럼'을 운영,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취업포럼'은 휴학, 취업 및 이직준비 등으로 휴식기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 주체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전문 진로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휴식기 채움 활동을 제공한다.

교육은 6월 참여자 선발을 거쳐 오는 7월~8월 온라인을 통해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취업포럼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75명으로, 금천구에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청년의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해 요일과 시간이 다른 3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취업포럼'은 인생전환기 청년들의 진로탐색 등 제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갭이어' 활동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2020년 금천구 청년네트워크의 정책제안을 통해 마련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진로에 대한 주도적 고민 없이 스펙 쌓기에만 몰두한 청년들의 조기 퇴사율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취업포럼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 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용,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503건 ▲출출간판 200건 ▲시설안내표지판 107건 ▲가로 판매·거리가게 11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시설물) 58건으로 나뉜다.

구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부과 유예하고, 지난 10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액(25%)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료 정기분 982건에 대해 총 6억2930여만 원 상당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에 나선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1188건에 대해서도 25%를 적용, 약 6억43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최만식기자

#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따로 또 같이 즐기는 단오잔치 열어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형 '따로 또 같이' 단오잔치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찾아오는 우리의 중요한 세시풍속 중 하나다.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이기도 하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단오를 기리는 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주민생활문화공간인 '별별곳간'에서는 매년 6월 개관기념 행사 대신 단오잔치를 열어 전통 절기를 챙기기 어려운 현대사회 도시인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은평구가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별별곳간'은 2015년부터 개관과 단오를 기념하여 단오의 주요풍속인 참모뭉에 머리감기, 천연염색 체험, 오미자와 익모초, 수리취떡과 같은 단

오 음식 나눠먹기, 축하공연을 진행해왔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어려워져 운영위원회는 행사 취소 대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단오잔치를 기획했다. 행사 키트인 단오 꾸러미를 직접 제작하여 위키스투를 통해 참여자들이 꾸러미를 자택에 가져가 동영상을 보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자리에 모여 단오를 기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 이어 '따로 또 같이'라는 이름으로 단오잔치를 만날 수 있다. 단오 꾸러미는 창포 수채화 키트, 장풍루 팔찌 키트, 부채 만들기 키트, 수리취떡, 오미자 주스, 손소독 디퓨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신청 후 6월 12일 현장방문을 통해 수령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현장에서 천연염색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상순기자



# 인천서구,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동행(同行)

### 자발적 주민 조직 문화도시상생협의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지역 소규모 축제 추진

인천서구문화도시추진단은 오는 12일 오후 1시 원신근린공원에서 문화도시상생협의체와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동행(同行) - 모두 함께 어울림 마당」을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자발적 주민 조직 중심인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는 2020년도 문화도시주민협의체부터 지속 참여해 온 주민 워킹그룹으로, 주민 주도의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위해 자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며 기업의 사회공헌 가치와 이념을 담아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활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하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동행(同行)-모두 함께 어울림 마당」은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지역의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협의체 일원이 준비한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추진해 지친 일상속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SK인천석유화학이 추구하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공생, 연대를 함께 논의하고 주민의 문화활동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으로 예비문화도시사업으로 주민과 기업 간 상생을 통한 민·관·산 협력 구조를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원신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앞 광장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연, 체험, 전시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공연은 어울림 동아리 버스킹과 어울림 예술 무대, 현장 접수를 받아 진행되는 어울림 장기자랑 주민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체험은 생활 악기 체험인 우쿨렐레 및 칼림바 연주하기, 공기정화식물과 플라스틱 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나만의 바람개비를 꾸미고 만들기, 캘리그래피 한지들 만들기, 가족 공예 탐구 및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할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전시는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캘리그래피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추진되는 행사인 만큼, 현장에서는 예약을 받아 소수 인원만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도시인천서구 SNS(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블로그 등)와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남/기자



# 종로구, 기업 연계 '창의교육' 첫 단추 끼워 내달부터 관내 중학생에게 선포

종로구는 지난 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기업연계 창의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산(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관(종로구)·학(중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종로구 창의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및 정보 교환 등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종로구는 지난해 6월부터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이번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종로구는 내달부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자체 개발한 180분 분량의 창의교육 프로그램인 '재미있는 스마트 시티'를 4개 중학교 1학년 500여명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 관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재미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체개발 영상을 가미한 이론 수업과 함께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실습수업도 병행해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실습수업은 학생들에게 체험키트를 제공해 나만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해 기대를 모은다.

김영종 구청장은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 '재미있는 스마트 시티'와 같은 창의적 콘텐츠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기업의 추가적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 인천시 최초 시행...군복무 중인 동구 청년을 위한 폭넓은 의료보장

인천 동구가 지난해부터 인천시 최초로 시행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장병들의 의료보장 지원 대책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해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구에 주소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돼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를 포함하여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4천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애 지급률에 따라 최대 4

천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 원이다.

구는 올해 현역병 및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한 군 복무 청년 총 334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복무 중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청년 총 14명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았다.

허인한 동구청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보다 많은 청년이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 인천 남동구,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더 좋은 서창마을 만들기'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9일 서창동 LH 1단지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발코니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라서 더 좋은 서창마을 만들기'란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선 남동구 청년예술인 일자리사업 푸플나인 Job Con 소속 청년 예술가들이 어쿠스틱밴드와 퓨전국악,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남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공연 등이 중단된 상황에 주민의 보금자리로 직접 찾아가 음악으로 함께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각 가정의 발코니에서 감상할 수

있는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는 16일(16시30분) LH 12단지, 23일(19시) LH 15단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성북구 주민이 PICK하다 '성북구 한 책' 최종후보도서 선정

서울 성북구가 '올해의 성북구 한 책 최종후보도서'를 발표했다.

2021 성북구 최종후보도서는 △시선으로부터(정세랑), △어린이라는 세계(김소영), △유원(백은유), △천 개의 파랑(천선란) 4권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성북구 한 책 읽기 운동은 올해로 11년 째를 맞이하여 대표 독서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주민협의체인 한책추진단의 토론으로 선정되는 성북구 한 책은 각 시대의 주요 이슈 및 시대적 분위기가 담겨있다.

올해의 성북구 한 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3월 한 달 동안 주민들이 270여권의 도서를 추천했고, 그 후 주민과 사서 50인이 3개월 간 열띤 조사와 긴 토론을 통해 최종후보도서 4권을 선정했다. (△주민추천도서(270권) → △1차 후보도서(10권) → △최종 후보도서(4권) → △성북구 한 책(1권))

이렇게 선정된 최종후보도서 4권은 성북구립도서관이 주최하는 작

가와와 만남, 주민토론회, 대출서비스 등 여러 행사 및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민들과 만나게 되고, 그 이후 대토론회를 거쳐 오는 10월에 한 책이 최종 선정된다.

성북구 한 책을 선정하는 한책추진단은 현재 530여명의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성북구립도서관과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가입 및 참여가 가능하다.

강성원/기자



# 미추홀구, '고인 돈'이라 지적을 받던 재난관리기금 '지원금으로 운용폭 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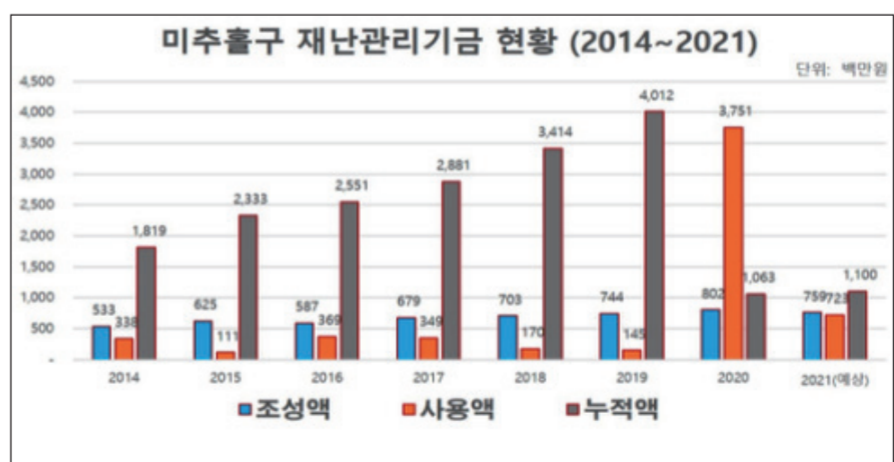
한때 '고인 돈' 지적까지 받던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규정이 포괄적으로 바뀐 후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기금운용 폭을 넓힌 결과다.

미추홀구는 지난해까지 누적된 재난관리기금 40억1200만원 중 37억5100만원을 사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36억1273만 원을 썼고 이중 31억9468만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사용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등에 1억~3억 원 정도만 사용하던 것에서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구는 매년 보통세 1% 수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2014년 18억1900만원에서 2019년 40억1200만원까지 쌓였다.

그러나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일



부 사용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고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독려하면서 재난기금 운용 폭이 넓어졌다. 이 때문에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전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법적 허용 범위에서 적극

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향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기금 집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도별 적립액 상향 조정 등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순희/기자

# 서대문구, 청렴 실천 의지 높이는 이색 배너 제작

서대문구는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서약식'과 '1부서 1청렴 챌린지' 사진 60여 점을 모아 최근 '청렴 배너'를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약식과 챌린지는 '위로부터의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전 직원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깨끗한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올해 4~5월 진행됐다.

구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진솔하게 알리고 직원들도 자주 마주하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배너를 청사 1층 로비에 설치했다.

배너에는 '청렴'이란 글자가 디자인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의 작은 사진들로 이루어져 눈길을 모은다. 직원들도 자신의 부서가 나온 사진을 찾아 살펴보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구는 청렴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국별 '청렴 영상'을 제작해 내부 행정망과 유튜브에 올린다.

지난달 환경생활국 편 '나는 서대문구청에서 일합니다'에 이어 이달에는 복지문화국 편이 나올 예정인데 직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청렴 문화 정착과 생활 속 청렴 실천을 위한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남양주시, 비대면 정신건강문자상담서비스 '마음건강 로켓처방' 운영

남양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마음챙김 사업으로 비대면 정신건강 문자상담 서비스 '마음건강 로켓처방'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 로켓처방'은 남양주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마음건강 문제 및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신건강 전문가가 맞춤형 답변 및 처방을 제공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 시 바나나우유 기프트콘을 증정하고, 후기 게시판에 처방 실행을 인증한 사람에게 오감 키트를 배송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상담을 독려하고 있다.

로켓처방을 통해 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

벼워졌다. 정성이 가득한 상담 문자를 받고 기분이 좋았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하며 내 자신에게 작은 것부터 해 주라는 메시지가 날 움직이게 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생각지 않게 장기화되며 실직, 구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갈등이 생기고 실내 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처가 줄어들며 마음 챙김이 힘들어졌다."라며 "로켓처방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고, 자신을 보듬으며 코로나19를 건강히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마음건강 로켓처방'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전단지 내 QR코드,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최정근/기자

**남양주시민 마음챙김 사업**

## 마음건강 로켓처방

#마인드 #Mind+인두 #힘줄만두 #자일만두 #아나무뎀을수있어 #오지마 #기거서말어

**로켓처방이란?**  
남양주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나의 마음건강문제 및 고민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정신건강전문가가 맞춤형 답변 및 처방을 제공하는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온라인 참여 방법**

1. PC 및 모바일로 홈페이지 접속
2. 마음건강로켓처방 버튼 클릭
3. 나의 마음건강문제 접수
4. 맞춤형 처방받기 (24시간 이내 답변 가능)

**온라인 접속 방법**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남양주시 마음건강 로켓처방

**참여 혜택**

1. 로켓처방 만족도 평가 시 모바일 쿠폰 발송
2. 처방실행이력 오감키트 선물 배송

#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디오북 낭독 봉사자 모집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오디오 도서관 '마음을 들려주는 목소리' 제작을 위한 목소리 재능 기부자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오디오 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지 못하는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며 각 목소리가 지니는 온도와 높낮이, 속도의 차이를 느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목소리 재능 기부자들의 낭독을 통해 주제별 연령별 동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독서를 즐기는 어린이들과 성인들 뿐만 아니라 지식·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서 취약 계층과 부족한 언어적 환경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 장르의 동화를 선정해 음성 녹음 후 QR코드

로 오디오북을 제작·배포 할 계획이다.

목소리 재능 기부자들에게는 낭독 원고 작성 및 낭독 연습, 음성 녹음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책이 될 수 있다는 나눔과 기여의 행복 뿐 아니라 낭독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책가독화와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인한 정서적 문화 공백과 언어적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디오북으로 듣는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각계각층에서 중사하는 일반인들의 목소리 재능기부와 결혼이민자들의 이중언어 재능기부로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인 오디오북을 통해 지역의 독서문화와 기부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울/기자

# 포천시-(주)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



포천시와 (주)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

11일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주)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탄분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주)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이었다.

포천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를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해안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거부처분과 상관 없이 GS는 현재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가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정동희/기자

포천시와 GS는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안을 마련했다. GS측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실행2리 실행3리 및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배출량인 1,297톤/년에서 710톤/년 감축한 587톤/년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 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주변 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상생 방안 추진이다.

포천시측 이행사항은 건축물, bio-SRF의 인허가를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하며, 지역상생방안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전임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투분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유연탄사용량을 50%줄이고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1,297톤에서 587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석투분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외롭고 긴 투쟁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석투분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 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장님과 포천시의 판단을 존중한다. 포천시는 포천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석투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석탄 반대 운동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협약 내용에 담긴 석탄발전소 및 주변지역 환경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하겠다. 또한, 포천시가 이 같은 갈등을 넘어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재단 등을 설립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포천시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세워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에 전국가적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박승원 광명시장, "민주와 평화의 길, 경기도와 힘 모아 앞장 설 것"

광명시는 10일 오후 2시 광명시민회관에서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기념해 토크콘서트 '민주의 씨앗이 평화의 꽃으로 피다'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5·18 민주화 운동→6·10 민주항쟁→6·15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되새기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하는 미안마의 평화를 기원하며 시민의 평화공간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광명시청, 오마이TV), 소셜방송 Live경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개그맨 강성범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1987년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춘 EBS이사장, 6·15 남북위원회 한중목 상임대표 등 민주화 운동 및 6·15 남북정상회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씨앗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6·10 민주항쟁', 평화의 꽃이 피어날 '6·15 남북공동선언'을 주제로 토크를 진행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6·10 민주항쟁을 다룬 '뮤지컬 유월담', 1980년대 민중가요의 아리온 '윤선애', 미안마 출신 소녀가수 '완이화'의 공연이 어우러져 행사의 화제를 모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역사를 잘 익히고 배우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미래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마음속에 있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국민이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 정부, 사회가 국민의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주 만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3월 9일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가 되었으니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서 북한의 지방도시와 체육, 문화부부터 교류에 앞장서야 한다"며 "광명시는 광명동굴 주변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시가 남북교류나 평화사업의 아지트가 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9월 과천시에 개교하는 1개 학교의 교명을 선정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국민협회 전문가,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명 선정위원회를 개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교명들의 타당성, 적합성, 지역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교명을 최종 선정 선정했다.

이번 학교명 선정위원회에서 교명이 선정된 학교는 과천시 갈현동 과천치식정보타운 내에 (가칭)과천시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교명 선정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9월 과천시에 개교하는 1개 학교의 교명을 선정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국민협회 전문가,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명 선정위원회를 개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교명들의 타당성, 적합성, 지역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교명을 최종 선정 선정했다.

이번 학교명 선정위원회에서 교명이 선정된 학교는 과천시 갈현동 과천치식정보타운 내에 (가칭)과천시

원준균/기자



**마음을 들려주는 따뜻한 소리**

## 오디오북 낭독 봉사자 모집

**당신의 목소리로 꿈과 희망을 전해주세요**

모집대상	1차 신청기간	낭독방법
오디오북 낭독이 가능한 분 (연령, 성별, 국적 무관)	2021. 5. 24. (월) 6. 30. (수)	녹음실 일정 조율하여 낭독 진행 (센터 언어교실, 청년공간)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방법: 031-775-5954/010-8357-5952 ypmc21@hanmail.net | 참여혜택: 오디오북 낭독기념품 증정, 재능기부 참여확인서 제공

# 시흥시중앙도서관, '독도 사진전' 운영 안내

시흥시중앙도서관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이 달 15일부터 '독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외교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공개한 사진 110여점 중 사진을 선별해 많은 시민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도록 기획했다.

독도의 사계절과 독도에서 자생하는 풀란 등 다양한 식물을 담은 사진뿐만 아니라 독도와 우리나라를 주제로 한 북큐레이션 전시를 함께 운영돼 시민에게 폭넓은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도 사진전'은 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관내 공공도서관과 전시를 원하는 작은도서관에서의 순회 전

시를 진행해 어린이와 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코로나 시대에 소중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청소년을 위한 '진로 독서프로그램', 인문심화 프로그램인 '도서관 지혜학교' 등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의 이야기를 들려줄 '시흥 휴먼북'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또한 정왕역, 신천역에 이어 시흥시청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신규 오픈하는 등 시흥시민의 독서편의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 하남시 GTX-D 원안위례신사선 하남연장반영, 서명운동으로 탄력

## “GTX-D 원안대로 하남 연결해야” 서명인원 20일만에 8만 5천여명 돌파

하남시가 적극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강동~하남 노선 원안 반영 및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요구가 시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거세지고 있다.

하남시는 8일 오후 6시 기준 'GTX-D 원안사수 및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명 참여인원이 8만 5천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이다. 목표인원 5만 명보다 3만 명 이상 초과했다.

10일 범시민 GTX-D 노선 유치위원회(위원장 유병기)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 돼 시와 국회의원, 시의회, 유치위 등이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로 보고 있다.

유치위 출범을 주도한 최중윤 국회의원은 국토부 2차관 간담회, 청와대 정책실장 및 정부수석 간담회, 긴급 기자회견, 송영길 당대표 간담

회를 진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해 원안 사수를 건의하는 등 GTX-D 원안 사수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달 18일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 코너를 개설해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고, 최중윤 의원은 유치위 자문위원장을 맡아 매주 골목당사를 열어 지난 7일까지 시민 서명을 받아 왔다.

또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03회 정례회 개최 시 '경기도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원안 추진 호소문'을 채택,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한편 유치위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 인구밀집 지역을 돌며 하루도 빠짐없이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미사리동민회는 회비를 모아 버스 광고를 게재했고 각 동 행정협의회·주민자치회 등 모든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미사동, 신장동, 춘궁동 등은 동 인구가 30% 이상 주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중윤 국회의원은 “무려 시 전체 인구의 30%나 되는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신 것은 GTX-D와 위례신사선이 반드시 하남시까지 연장되어야 할 이유”라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절대로 이런 하남시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GTX-D 노선은 균형발전·경제적 타당성·급행철도의 제 기능 수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김포에서 하남까지 연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서명운동 결과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열망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은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위례하남 주민의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방미숙 의장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증가를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남시는 교통복지 긴급 수요도시”라며 “국토부는

GTX-D 사업취지인 광역교통 여건 개선에 따른 수도권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위 유병기 위원장은 10일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GTX-D 원안 추진만이 수도권 광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GTX-D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하남시민의 의지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시가 경기도 등과 공동제안한 GTX-D 강동~하남 경유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축소하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을 제외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하남시는 김포, 부천, 강동 지자체장들과 함께 'GTX-D 김포-하남 원안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최근수기자

# 김포시,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 김포본동 주민자치회 자율방범활동

김포본동 주민자치회는 6월 9일 저녁 치안 취약점 지역 야간방범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방범활동은 구시가지 재개발 지역과, 길포공원, 계양천, 우리병원까지 이어지는 시가지 외곽까지 폭넓은 야간방범활동을 실시했다.

김현수 주민자치회장은 “이제 시작이지만, 방범 활동을 하는 시간대 만큼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재국 김포본동장은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방범활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안전 순찰을 당부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20시부터 22시까지 각자의 구역을 돌면서 방범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동희기자



# 의왕시, 노인 행복·안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의왕시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인 권익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노인 행복·안전 네트워크 공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의왕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의왕경찰서, 경기도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랑채-아름채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 1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체결로 참여기관은 △노인권의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협력 지원 △지역 내 학대피해 노인 서비스 제공 및 재학대 예방지원 △지역사회 노인 행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

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문제와 함께 학대 의심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를 예방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대 의심사례가 생길 시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학대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노인이 살고 싶은 행복하고 안전한 의왕시가 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준균기자

# 파주시, 월드비전과 취약계층아동 지원 MOU 체결

파주시는 지난 10일 월드비전경기북부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꿈꾸는아이들'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월드비전은 1950년도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와 홀로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국제구호개발 비영리 민간단체다. 현재는 전 세계의 취약한 아동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꿈꾸는아이들'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문제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위기사항 해결 및 꿈과 재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민숙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함께 아동들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복지정책국장은 “아동들을 위한 뜻깊은 사업에 적극 애써주시는 월드비전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동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통합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할시 파주시 드림스타트팀(031-940-4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기기자



# 가평장학관 입학생들과 함께하는 추억여행

가평군이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소재 가평장학관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리산 남도 꽃 정원' 참여 행사를 열어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해마다 참여하던 지역 봉사활동과 장학관에서 주관하던 각종 프로그램이 취소된대 따른 것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군민들의 장기간 단절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까지 '지리산 남도 봄 꽃 정원'유료개방 행사에 가평장학관 입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입학생들이 남도 꽃 정원 개방 기간 중, 이곳을 찾아 인증사진을 찍어 제출하게 되면 가평장학관 생활수칙에 따라 상점도 부여하는 등 애항심을 높이고 관광지 홍보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앞서 2019년에도 가평장학관 입학생들은 가평을 달전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해 하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2018년에는 기숙사 걱정없이 공부하는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군 지원순

환센터를 찾아 재활용 선별작업 체험과 재활용품 파봉 및 분리작업 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애항심을 고취했다.

2018년 2월 개관한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소재 '가평장학관'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들에게 입사비 5만원, 월 사용료 15만원(식사비 포함)의 이용료로 제공하는 기숙사다.

군 직영인 가평장학관은 109명을 수용할 수 있는 희망동과 행복동 등 5층 짜리 건물 2동 53실 규모로 2인 1실로 이루어졌으며, 3·4인실도 각 1개씩 있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학업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꿈과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항상 고향을 생각하는 애항심을 가지고 가평의 관광자원도 많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라섬 남도 꽃 축제를 개방행사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일 관람료는 5천원으로 가평사랑상품권으로 교환되며 가평군민 및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최만식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 중기부 '상권 살리기 공모사업'에 뛰어난 경주시... 경주중심상가옛 명성 되찾나

## 침체된 경주 원도심 상권, 정부 지원으로 이번엔 탈바꿈 할까

주낙영 경주시장이 10일 안동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찾은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중기부가 시행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경주 중심상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경주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주 시장은 이날 오후 권 장관을 면담하고 경주의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등 총 80억을 지원받게 되며, 2022년부터 2026까지 5년간 거리 정비 사업부터 테마존 운영,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상권 홍보,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된다.

사업 예정구간은 중심상가, 북정로 상가 등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대표 상가 2곳이다.

해당 구간은 최근 2년 사이 점포



552개 가운데 120개가 현재 공실이 며, 방문객도 크게 줄어 공실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 시장이 중기부 장관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이유다.

또 주 시장은 이날 권철승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타워'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사업은 성건동 350-2번지 경주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일원에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48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비 중 36억원을 중기부에 요청했

한반식기자

# 영양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선정

영양군은 한국형 그린뉴딜의 하나인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석보보건지소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15곳(보건지소·진료소 13, 어린이집 2) 총 사업비 57억 원(국비 40, 도비 5, 군비 12)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고성능 창호 설치, 단열재 보강, LED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에너지의 성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예산 문제로 유지보수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경우가 많은데 국비보조율이 70%에 달하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컨설팅으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개선, 생활 환경개선으로 더욱 쾌적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및 미래 영양을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희망에너지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대구 최초! 남구청과 KT가 함께하는 '스마트 경로당 만들기'

## 10일, (주) KT 대구고객본부 달서지사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지난 10일, (주) KT 대구고객본부 달서지사(지사장 이차형)와 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명품 남구 스마트 경로당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스마트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남구청과 KT가 정보통신기술(ICT) 시

대 흐름에 따라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스마트 생활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협약이 성사되어 대구에서는 최초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체결한 협약으로 KT에서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필요한

남구 알라미 TV 서비스와 스마트폰 및 콘텐츠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무상 지원하고, 인터넷과 IPTV, 와이파이를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남구청과 KT가 함께하는 '스마트 경로당 만들기사업'은 6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소식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어르신 복지의 성공적인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 상주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자녀를 둔 상주시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상주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센터장 오귀영)는 지난 2021년 6월 9일(수)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작년부터 시작한 상주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부모교육은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에 힘입어 금년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덧붙여 가정의 날이 다가오면서 참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호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9시부터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은 약 100분가량 이어졌다.

상주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보호자들과 그들의 지인을 대상으로 하였던 작년도와는 달리 금년에는 청소년 자녀를 둔 상주시 소재의 모든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였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졌던 가정의 우울과 불안에 대해 장기화된 재난상황에서의 극복 및 예방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소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부담 없이 익명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식기자



# 대구 웰니스 체험관광상품 1,400여건 이용 실적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지난 2월 최종 선정된 대구 웰니스 체험관광상품을 5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 기반 관광플랫폼(OTA)을 통해 할인 및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1,400여건 이용 실적 성과를 거뒀다.

대구 웰니스 체험관광 상품 '체험! 대구로'는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콘텐츠 체험 확대를 목적으로 발굴해 상품화한 후, 지난 5월 한 달간 온라인 기반 관광플랫폼(OTA)을 활용한 시도가 성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된 1,400여건의 상품 중 체험분야가 전체 73.9%(1,052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미분야 23.9%(340개), 여행분야 2.2%(32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내보다 야외활동을 선호함에 따라 직접 경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체험분야의 콘텐츠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상품으로는 'K-뷰티 데이 스파 12.3%(175개)', '실크스크린 셀프 디자인 굿즈 만들기 5.0%(71개)'와 '패러글라이딩 2인승 체험비행 7.7%(110개)', '스파밸리 네이처파크 숲체험 51.8%(738개) 등 도심 중심지 인근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내추럴 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그 밖에도 나만의 은공예품 만들기, 라탄트레이 만들기 등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할인 프로모션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다양한 대구의 웰니스 체험관광 상품들은 온라인 기반 관광플랫폼(OTA)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체험! 대구로' 홈페이지에서도 예약할 수 있어 향후 꾸준히 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체험관광 상품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별관광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온라인 기반 관광플랫폼(OTA)을 통한 판로개척을 마련하는 등 향후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관광콘텐츠의 브랜드화 추진으로 지역의 관광업계가 자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김천사랑상품권(카드) 판매 415억원 돌파

김천시에서는 김천사랑상품권(카드) 판매액이 6월 10일까지 415억 원을 돌파하여 전년도와 비교한 판매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판매액 415억원 중에서 김천사랑카드가 311억원, 종이형 상품권이 104억원 판매되었으며, 환전율도 9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지역자원의 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9년 30억원, 2020년 600억 원 을 판매하였다. 올해는 당초 김천 사랑상품권 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1,000억원까지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김천사랑카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충전도 쉽게 할 수 있어서 30,000개가 발행되어 사용 중이다. 카드형의 경우 작년 4월 출시부터 올해 4월까지 업종별 사용 현황을 분석하면 음식점(카페 등) 26.4%, 소매점(슈퍼마켓, 편의점 등) 14.9%, 병원(약국 등) 8.1%, 취미·문화·스포츠 5.8%, 학원(독서실 등) 4.7%, 농수축산물집(정육점) 4.6%, 이미지용 2.3%, 농어업용품 2.1%, 기타(차량, 의류, 전자제품, 신발, 약세사리 등) 11.1%로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올해는 월 100만원씩 김천 사랑카드를 충전해서 꾸준히 사용할 경우 1년에 1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장은 "김천경제도 살리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김천사랑상품권(카드)을 사용하는 시민들

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연중 10% 할인판매와 인센티브 지급을 시행하므로 김천사랑상품권(카드)을 많이 활용하여 생활비도 절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 웹태완이 쏜다! 김천상무, 릴레이 입장권 기부 캠페인 시작!

김천상무 선수단이 자발적으로 단체권을 구입해 초등학생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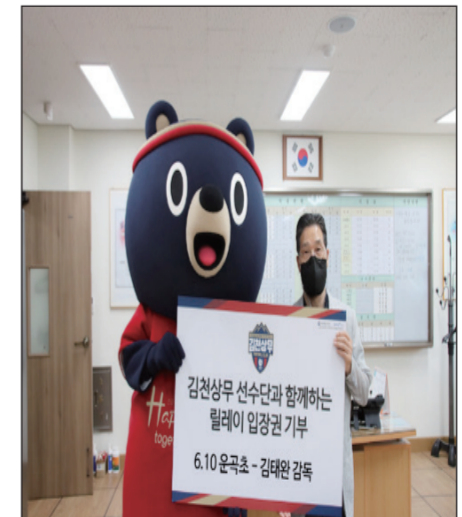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배낙호)이 10일 오전 운곡초(울곡동)를 방문해 안전한 등굣길 프로그램 및 입장권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벌였다. 김천시는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 김천상무는 본격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재개했다.

10일 교통 지도 캠페인 '김천상무와 함께 안전한 등굣길 되찾아'에는 김천상무 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해 운곡초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도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에서 '정지선을 지켜주세요' 안전 깃발을 들고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통지도 이후에는 운곡초 교장실에서 입장권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첫 시작은 김태완 감독이었다. 김태완 감독이 직접 구매했던 단체권 20매

를 운곡초에 기부해 학생들에게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입장권 기부 캠페인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1일 오전에는 다수초(다수동)를 방문해 심상민 선수구 구매 단체권 20매를 기부했다. 김천상무는 감독, 주장을 필두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천시 내 각 초등학교를 방문해 릴레이 입장권 기부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박형준 시장 “부산 민주주의 역사 상징하는 역사기념관 건립할 것”

### 부산시, 건립방향 결정·후보지 조사 등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로운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설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오후 7시, 민주공원 앞마당에서 열린 「제34주년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에 참석해 이 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산화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부상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며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설립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은 “6월 민주항쟁은 전 계층, 전 분야의 시민이 함께 일어나 오늘날의 시민사회를 태동시킨, 민주주의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특히 우리 부산은 전국적인 시위의 물결을 띄운 항쟁의 중심지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부산시민 모두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획을 그은 주

인공들”이라고 평했다.

이어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불어 나아가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며 “이것이 6월 항쟁의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이면서도, 그 역사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기념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은 지 20년이 넘는 민주공원 내 민주항쟁기념관이 유일한 시설임을 꼬집었다.

빠른 시일 내에 역사기념관을 볼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건립 방향을 결정하고, 후보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자랑스러운 부산 민주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념전시 '민중미술 2021- 지구표류기'는 6월 10일부터 8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주공원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전시는 '민중미술가열전 VI 이인철', '민중미술의 현장 시민지구 2021 - #코로나그램'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되며 민주공원에 소장하고 있는 이인철 작가의 작품 다수를 내보일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 함안군,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전달식 가져

함안군은 지난 11일 오전, 군청 광장에서 조근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성형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의 노후 차량 2대 교체 및 법정 운행대수 증가에 따라 카니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해 전달함으로써 콜택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은 참석자 소개, 조 군수의 차량전달, 조 군수와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장의 차량기부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군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관내 심한 장애인 등 교통수단 이용 및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8대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되고 있다. 현재 군내 등록된

이용자는 420여명이며, 이용요금은 관내에 2,200원, 경남지역 내는 시외버스요금의 1.5배이다.

전달식에서 조 군수는 “오늘 전달한 차량이 관내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는 교통약자의 발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밀양시 청소년 양성평등 & 폭력예방 UCC 작품 공모전' 개최

### 청소년 양성평등 문화인식 및 폭력예방 홍보·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는 밀양시 성가족상담소와 함께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밀양시 청소년 양성평등 & 폭력예방 UCC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직접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 인식과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밀양시 관내 초·중·고교생 중 팀, 동아리, 개인 모두 공모가 가능하다.

공모 작품은 30초~5분 내의 노래, 율동, 상황극 등의 영상으로 8월 10일까지 이메일 또는 밀양시 성가족상담소에서 방문접수를 받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 중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입상자에게는 대상 1팀(명) 100만원, 최우수상 2팀(명) 각 50만원, 우수상 5팀(명) 각 20만원,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하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 홍보를 위한 행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백정화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 바람직한 양성평등 문화와 폭력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전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성가족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2021 밀양시 청소년 양성평등 & 폭력예방 UCC 작품공모전**  
2021. 6. 11. ~ 8. 10.

**참조기간** 2021. 6. 11. (금) ~ 8. 10. (화)  
**UCC 동영상** 30초~5분 이내  
**참조주제** 양성평등,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유주제 (노래, 율동, 상황극 등 자유로운 방식)  
**참여대상** 밀양시 관내 초·중·고교생 (팀, 동아리, 개인 상관없이 공모 가능)  
**제출서류** 공모신청서(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 1부, 동영상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aifid1391366@hanmail.net  
**발문접수** 밀양시 노상대길 34 익산문화회점 3층 밀양시성가족상담소  
**결과발표** 2021. 8. 25(수) (예정) 밀양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시상** 양성평등주간(2021.9.1~9.7)행사 시 시상 (예정)  
**문의** 밀양시성가족상담소 055-352-1367

주최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밀양시성가족상담소 후원 밀양시

# 합천군 '강한 부자되기 프로젝트-하브루타 경제교육' 교실 개강

자녀가 어릴 때부터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 특별한 날에 주식을 선물하는 등 자연스럽게 경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녀기 시대라 불리는 요즘 학부모 사이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흥미를 끌고 난 뒤,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수업이 시작됐다.

바로 합천군 평생학습관(합천읍 옥산로 96-7)에서 실시하는 '건강한 부자되기 프로젝트-하브루타 경제교육' 교실이다.

합천군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교육을 통한 건강한 부자가 되기 위한 하브루타 경제교육을 개설하였다.

수업은 나의 소득을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기부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하브루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하브루타란 “왜?”라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유대인 전통의 교육방법을 말한다.

수업을 맡은 장성에 소장(하브루타창의인성연구소)은 “숫자와 용어에 매몰되는 피상적인 경제교육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고, 경제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부자되기 프로젝트” 수업은 6월10일부터 7월28일까지 주 1회(총 8회) 운영되는데, 특이하게도 첫 수업은 부모가 참여하는 수업이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지도하고 협조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또한 ‘경제’라는 화두를 하브루타 토론형식을 통해 변화하고 자란 아이들의 생각을 부모들이 종강수업에서 만나볼 수 있다.

수업을 들은 한 학부모는 “자녀들의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겪어주는 수업을 만나게 되어 다들 즐겁고 기쁘다.

이 수업을 통해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광용기자



# 통영시, 봉숫골 도시재생예비사업 마을원에 아카데미 개강

통영시에서 추진 중인 2021 도시재생예비사업 ‘봉숫골에 향기를 꽃피우다’와 관련하여 마을 원에 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6월 10일 14시 통영리스타플랫폼 6층 브리핑룸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해 봉평동 봉숫골 지역은 2020 국토교통부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한평정원을 3개소 조성한 바 있어 이번 교육은 주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시작하였다. 참여자는 봉숫골 인근 주민 20명으로 마을 원에 아카데미는 오는 내달 8일까지 총 7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마을 원에 아카데미에서는 원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습뿐만 아니라 한평정원, 꽃길 보행로 조성 등 마을 원에 경관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골목 속 작은 한평정원 조성은 주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의 확산과 녹지공간의 재생으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마을원에 아

카데미를 통한 교육으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후후 주민들이 주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갖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 양산시 서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풍년기원 사랑나눔 모내기 펼쳐 '훈훈'

서창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휴경기 경작을 통해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고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창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부녀회는 지난 10일 회원 25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산시 용암길 18-9 소재 800여평 유희지에 '풍년기원 사랑나눔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사정으로 인해 경작을 하지 못하는 서창동 소재의 유희지를 발굴하여, 토지 소유주의 협조를 얻어 한시적으로 기부를 받아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작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이다. 지난해 휴경기 경작을 통해 마련한 배미(10kg) 35포를 서창동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날 모내기행사를 주관한 조중환 협의회장은 “오늘 바쁜 가운데 참여하여 함께 해준 회원들께 감사드리



며 앞으로 더욱 많은 봉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회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나유순 서창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할 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주시는 새마을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 남원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 발표

##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10일 오후 남원시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3개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으로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훈부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오승기 곡성 부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는 제주·세종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례를 제시하고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

책이슈리포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2020년 4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과 함께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휴양·문화 복지도시 조성 사업 등을 담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관광 이외에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발굴하여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특히 조합은 용역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 지원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을 활용하여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상훈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한 토론회에서 자치분권은 시대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투쟁해 '쟁취하는 것'이라 밝힌 바가 있으며, 지리산권 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지역주도의 자치분권 정책추진을 적극 환영 한다"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리산권 공동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며, "지리산권관광개발

조합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연계협력의 경험을 쌓아온 지리산권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3개 광역지자체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지역 내 격차는 물론 지역 간 격차까지 발생하는 지리산권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전라북도, 닭 동물복지 도축장 전북에만 유일!

전국에서 전라북도에만 있는 도축장이 있다. 닭 동물복지 도축장이 바로 그것으로, 올해 11월 15일부터 추가로 지정되며 도내에 4개소의 닭 동물복지 도축장이 운영된다.

전북도는 10일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설을 갖춘 닭 동물복지 도축장이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되며 전북이 전국의 가금육 관련 동물복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되기 전까지는 생명이 있는 닭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축장을 말하며, 닭의 생산부터 운송 및 도축까지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어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부안군에 있는 참프레에서 닭 동물복지 도축장을 지정받은 이후 하림 익산·정읍공장에 이어 4번째로 11월 15일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을 인증받아 전국에서 전북에만 유일하게 닭 동물복지 도축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동물복지 도축장의 확대 지정은 고품질 한 축산물의 도축·가공 확대와 전북 축산물 품질의 이미지 향상 및 도내 축산물의 판매 활성화로 이어져 AI 발생으로 어려워진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송일/기자



# 전주시 '선미촌에 활력을' 팝업스토어 문 열어

성평등전주, 10일 선미촌 팝업스토어 오픈식, 11월까지 7개 단체와 함께 임시 상점 운영

성매매집결지에서 서노송예술촌으로 탈바꿈한 선미촌에서 버스킹 공연과 퍼즐게임을 즐기거나 스테이크와 빵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팝업스토어(임시 상점)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는 10일 선미촌 시티가든 기어공간에서 김원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송정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팝업스토어 오픈식을 개최하고, 서노송예술촌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문을 연 선미촌 팝업스토어는 △전북여성예술인연대의 '팝업스토어, 버스킹 공연, 예술전시' △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콘텐츠 판매와 3D 퍼즐체험' △어쩌다 청년의 '청년공방 운영과 원데이클래스(드로잉, 원예)' △새털구름 공작소의 '한지 및 냅킨 공예체험·전시·판매' △온 투게더의 '동남아 결혼이민자 공유 홈페이지 카페, 핫센스테이크와 쌀국수 판매' △노마드의 '업사이클링 퍼니처 전시 및 판매' △아중리 맘 공동체의 '브런치카페 및 쿠키클래스' 등 총 7개다.

선미촌 내 빈 업소에 자리를 잡은 이들 팝업스토어는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 기간 동안 각 업소를 둘러본 뒤 도장을 찍어 굿즈를 받는 여행길 스탬프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 시간은 오전 11

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업에 따라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연다.

이에 앞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7개 단체는 '지역사회가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되길 희망하는 공동약속문을 통해 동등한 참여·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평등·인권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선미촌 공간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여성 인권침해 공간이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시민 주도의 선미촌 리빙랩 사업을 통해 친시민적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되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미촌 리빙랩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선미촌 리빙랩 등 다양한 혁신사업을 통해 전주의 변화를 이끌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예정이다.

김송일/기자



# 정읍시, 코로나19 집단면역 가속...1차 백신 접종률 35.8% 돌파

전국 접종률 1차 17.9%, 2차 4.5%보다 웃돌아

정읍시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차 접종 3만3,972명과 2차 접종 1만1,817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는 정읍시 18세 이상 인구 9만4,806명 중 1차는 35.8%, 2차는 12.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접종률 1차 17.9%, 2차 4.5%보다 높다.

시는 지역주민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18개소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비롯해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교정시설 종사자, 장애인, 노인방문 돌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접종했다.

이들 접종 대상은 총 11,061명이며, 이 중 1차 접종은 8,891명(80.3%), 2차 접종은 1,410명(12.7%)이 접종했다.

시는 자체 접종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접종했고,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 접종,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정읍체육관)에서 2분기 접종대상자인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이용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했다.

대상은 총 15,558명이며, 이 중 13,273명(85.3%)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은 현재 10,407명(66.9%)이 접종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27일부터는 민간 위탁의료기관 36개소에서 만 60세~74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접종대상자는 총 23,293명이며 1차 접종은 11,808명(50.6%)이 접종을 완료했다.

오는 7월(3분기)부터는 학교와 돌봄 공간, 50대 일반 성인에 대한 접종도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대입 수험생, 50~59세 성인은 다음 달부터 1차 접종을 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조저은 냉동고를 신청하고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보건소와 시청, 읍면동 직원들은 백신접종 대상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백신접종을 권유하고 동의를 받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례를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 우수 지

방자치단체로 평가받기도 했다.유진섭 시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접종 시기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하은/기자

# 완주군,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고향발전 응원

완주군은 재경 완주군민회 임원진이 고향을 방문해 발전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10일 완주군은 재경 완주군민회 신임회장장과 임원들이 지난 9일 완주군을 찾아 박성일 완주군수와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완주군 애환운동본부 본부장과 사무국장도 함께 참석해 재경 완주군민회 임원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올해 초 재경 완주군민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경희 회장은 "문화도시와 수도도시 선정, 복합행정타운 개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쿠팡 등 대기업 유치 등으로 전국에서도 눈에 띄게 발전하는 고향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재경 완주군민회에서 몸은 떠나 있지만 2021~2022년 완주방

문의 해 등 고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 회원들이 함께 고향홍보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다"며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욱 자주 고향을 찾아 군정에 대해 좋은 의견도 주시고, 완주를 알리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기자



# 부안군,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일변산관광개발 사업협약 체결...레저시설(골프장) 등 개발

부안군은 10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대일변산관광개발(주)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김호석 대일변산관광개발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일변산관광개발은 ㈜대일개발에서 초기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를 전북관광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대일변산관광개발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마포리 일원 약 97만 5374㎡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자해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

양·문화시설 총 4개 지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편의시설지구에는 관광안내소, 주차장, 산책로가 들어서며 숙박시설지구에는 휴양콘도미니엄, 아트뮤지엄, 레스토랑·카페 등이 조성된다.

운동·오락시설지구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반짝일 수 있는 벨리코스 9홀과 푸른 서남해 바다를 조망하며 즐길 수 있는 오션코스 9홀 등 총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자연친화형 클럽하우스가 조성될 계획이다.

휴양문화시설지구에는 레저파크, 캠핑파크, 스파엔터테인먼트 등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레저시설이 들어서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생생센터, 향토음식점, 지



역특산물 판매센터 등으로 개발된다.

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은 이날 사업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격포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환경·재해·도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 전북도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투자협약 체결로 도와 군은 투자보조금 지원 및 관광숙박업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대일변산관광개발은 명품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간사업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전국 제일의 관광단지로 거듭나는 명품 관광도시 부안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 김영록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영길 민주당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김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하다보니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코로나 이후에 시·도간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분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현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재정분권에서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3년만 한시보전했다”며 “전남은 현재 균특 3년 보전이 없어지면 1년에 4천여 원의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차 재정분권 추진 논의와 함께 1차 재정분권의 문제점인 균특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안기자



# 여수시, “안전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달성

여수시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체 524개소에 대해 100% 가입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보험가입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524개소를 대상으로 상담, 공문, 유선,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한 끝에 지난 9일자

기준으로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민박업소들이 안전 사고 배상 능력을 확보한 만큼,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책임보험 100% 달성을 계기로 안전한 여수 농어촌민박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광양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아파트를 짓는 이유

## 성황·도이지구 등 7개 단지 4,334세대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계속 공급

광양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6%가 넘었지만, 올해 성황·도이지구 등 7개 단지 4,334세대를 시작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공급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때 주로 ‘주택보급률’ 지표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을 합한 주택 총수에 일반가구 수로 나눈 백분율로써 주택 현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2019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로 수도권이 99.2%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100%가 초과한 상태이며, 지방권은 110.1%이다.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평균이 113.6%를 고려하면 광양시는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통계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으면 1가구당 1주택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있지만 조사 지표에는 오피스텔, 기숙사, 농어촌 빈집 등까지 포함해 산정한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쾌적하게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아파트를 짓는 이유**

- 특정 지역과 유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음
- 우리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55.3%를 차지함
-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빈집이 주택합계의 15.1%를 차지해 실제로 거주할만한 주택의 비율은 많지 않음

거주할 수 있는 집은 통계치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세대원 수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5년 미만 신축, 6~10년 준신축 등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지만, 광양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5%나 차지한다.

시는 이런 이유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선 6기부터 도시계획에

근거해 전략적으로 택지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성과가 차츰 실현되어 성황·도이지구 등 7개 단지 4,334세대를 시작으로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광양시의 생활시설 기반이 확충되고, 자연스럽게 도시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석기자

# 담양교육지원청, 대나무 향기 따라 인문학을 만나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담양금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가사문학의 산실인 한국가사문학관과 담양의 대표적인 정자 식영정과 소쇄원을 탐방하며 담양의 향기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담양군 문화해설사(송명숙)가 동행하여 가사문학의 이해를 도왔으며 직접 가사 탐본 체험과 해설을 곁들인 정자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우리 고장 담양의 문화유산을 통해 인문학을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인문학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료는 담양군에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한 ‘생태도시 담양에서 배우다’라는 책자로 천년 담양의 문화 유산이 은은하게 배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담양금성중학교 학생들은 “담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철주 담양교육장은 “우리 청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앞장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문학적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 완도군,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준공 및 체육시설 확충 박차

완도군은 공설운동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건립했다.

주차타워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등 24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2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2021년 6월 준공했다.

공설운동장이 있는 체육공원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조성하여 축구 전용 구장과 테니스장, 소프트 테니스, 야구장, 족구장, 역도 훈련장, 본부석 개축 등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건립된 지 20년이 된 농어민 체육센터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체육행사 및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전문 체육시설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체육공원 내 건립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체육 활동을 위한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국비 등 195

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136㎡로 건립되며, 현재 공정률은 23%,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천후 테니스장은 국비 등 18억 원을 투입, 지상 1층, 연면적 1,820㎡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지역 주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금일·금당·노화·보길·약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였고, 보길 생활체육공원 조성, 고급 생활체육공원 및 파크골프장 조성, 노화·청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개최될 2023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2024년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및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 강원영상위원회 - 춘천사회혁신센터 '영상문화를 통한 사회혁신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는 6월 9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강원영상위원회, 춘천사회혁신센터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원영상위원회의 다양한 영상 관련 사업과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시민참여 플랫폼인 커먼즈필드 춘천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지영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강원영상위원회는 '단편제작 워크숍', 강원영화 상영회,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 전반적인 콘텐츠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춘

천사회혁신센터는 '각종 사업 개최·운영에 따른 기본 인프라(공간 및 시설 등) 지원', '시민참여 프로젝트 기획·운영',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강원영상위원회 홍지영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춘천시 전역에 영상문화를 통한 사회혁신 저변확대의 기틀이 잘 다졌으면 한다."며 "두 기관의 공동협력 협약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이번 협약 이후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은 '2021년 강원영상인 발굴·지원사업 - 단편제작 워크숍'을 위하여 참여자 모집 및 각종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동원기자



## 정선군 지친몸과 마음을 달래는 곳, 가리왕산 곤돌라로 오른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위원장 이선우)」의 결정을 토대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에 즉시 착수하는 동시에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군민의 요구를 감안해 곤돌라 3년 한시 운영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선군은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3년 한시 운영기간 이후에는 정부가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한다.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위원장 유재철)와 정선군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의「곤돌라 한시 운영」결정이 있기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 관계자들과 군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반투위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곤돌라 한시적 운영 결정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협의회에서 수용하면서 국가적 자산인 올림픽 유산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정선군의 설명이다.

정선군은 앞으로 3년동안 가리왕산 곤돌라를 지역 대표 생태관광지로 육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시설물 이관을 비롯한 국유림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곤돌라 정비와 전담대, 안전센스 설치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오는 2022년 4월부터는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최만식기자



## 강원도, 2021년 제9회 온·오프라인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국내 기업모집 610개 부스(온라인300, 오프라인310)전량 완판

오는 10월 14일 원주 댄싱공연장에서 개막하는 제9회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는 가운데 국내 참가 기업 신청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GTI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접수결과, 모집목표 610개에 온라인 300개, 오프라인 310개 등 총 610개의 부스 신청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악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및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뷰티, 바이오, 의료기기, 청정식품, 공예품, 친환경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군이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참가 취소를 대비한 예비참가 희망기업에 대해 오는 6월 11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해외기업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와 병행하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내·외 바이어 일대일 매칭, AI통번역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상담 등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위한 단계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기철 중국통상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는 2021년 GTI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를 통해 '수출 + 현장판매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 춘천시 추억의 영화 벽화 거리 '개봉박두'

후하천 산책로 구간에 추억의 영화 벽화 거리가 조성된다.

춘천시정부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후하천 산책로 일부 구간 벽면에 추억의 영화 포스터 등 간판을 그려넣는다고 밝혔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거의 향수를 불러 올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하천 환경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래된 산책로 콘크리트 벽면에 영화 포스터를 입혀 콘크리트 부식 방지를 물론 쾌적한 산책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시정부는 과거 실제 영화관에서 간판을 그렸던 화가를 섭외했다.

사업 구간은 석사동 후하천 수로길 산책로 일대이며 벽면 170m, 높이 3~5m다.

먼저 이달 중 3개 정도의 작품을

그리게 되며 점차 사업을 확대 나갈 계획이다.

마둑화 건설과장은 "지난 30년간 폐쇄된 하천수로 박스에 각종 전기, 통신 등을 설치했지만 콘크리트 벽면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페인트를 이용하여 작품을 그려넣으면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휴가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하천환경문화를 개선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2019년도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거두리 성우오스타 아파트에서 ~ 공지천을 연결하는 산책로 700m를 만들었다.

이 중 170m 구간은 수로 박스구간으로 4개의 수로 박스구간 중 1개소를 시민들에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최재은기자



## 태백시, '지방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설문조사 진행

태백시가 강원도 최초로 4월부터 시행중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환급받을 수 있는 도내 최초 비대면 세무행정 서비스이다.

시는 현재 시행중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더욱 발전시키고 지방세 정책발전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2차 설문조사는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태백 혹은 카톡환급신청서비스를 검색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3분 내외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더욱 발전된 세무행정서비스로 앞으로도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납세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원주시, 2021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원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도입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시 중개사무소의 영업 지장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일부 특정 지역의 중점 단속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자율점검'으로 접속해 점검표를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변경 등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6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며, "미참여 업소와 민원 유발 업소는 별도 방문 점검을 추진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정선군,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정선군은 10일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아리하람 IT교육실에서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시책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그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책 전반에 성평등 실현 및 담당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예슬 강원도여성가족연수원을 강사

로 초빙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성별영향평가서 구성 및 지표 이해, 사업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성별영향평가서 분야별 작성 사례, 성별영향평가 GIA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통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금년부터 법령과 사업은 물론 홍보물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하여 성평등한 제도 실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철원 DMZ 평화관광 주말 확대 운영

철원군은 이달 12일부터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볼 수 있는 DMZ평화(안보)관광의 주말 운영 횟수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1회 증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광객들은 평일 하루 2회(10:00, 14:00), 주말 하루 3회(10:00, 13:30, 14:30)로 민간인 통제구역인 철원평화전망대와 월정리역 등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고적정에서 출발하는 DMZ평화(안보)관광을 지난 3월 부분 재개하였으나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승용차(4인 이하)를 대상으로, 1회 투어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여 선착순 현장 접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 까지 셔틀버스 및 단체관광(승

합차 포함)은 운영하지 않는다.

DMZ두루미관광부서는 "DMZ평화관광이 3월 25일 재개한 이후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조기에 접수가 마감된다"며, "이번 주말 확대 운영 결정을 통해 DMZ평화관광을 찾는 관광객들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DMZ생태평화공원(십자담, 용양보), 승리전망대 등 철원의 또 다른 DMZ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성 평가 및 수해복구공사가 각각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르면 하반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

현유주기자

# 충북도, 국내 최대 전기차 전시회에서 외자유치 나선다

##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 코엑스 xEV트렌드코리아 2021 참가

충청북도는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전기차 전시회인 xEV트렌드코리아 2021에 참가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xEV트렌드코리아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하고 코엑스와 한국전지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전기차 전시회로 현대차·기아 등 총 100개사가 참여해 45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도는 외자유치 홍보관을 열고 전기차의 기반이 되는 2차전지 생산기지가, ICT 소부장 산업의 메카인 충청북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관계자와의 투자 상담을 통해 전기차 관련기업 및 연관기업에 대한 유치활동도 진행한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오창 이차전지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수소 모빌리티

구축 △혁신도시대상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계획 등 다가오는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충북의 발전상황을 소개한다.

도 투자유치 홍보관 외에도 도내 소형전기차 생산업체인 엠비아이와 대창모터스 등이 각각 독립 부스를 열고 전기 이륜차와 소형화물차 등을 전시한다.

국내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소개 및 상담 진행을 통한 사전 구매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구 충청북도 투자유치과장은 "충북은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수준에 있는 충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업의 투자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아산시, KTX 천안아산역 지하역 설치 확정 '향후 정차역 전환 가능'

KTX 천안아산역 하부에 구난역 설치 확정됐다.

아산시는 10일 기획재정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총사업비에 KTX 천안아산역 구난역 설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천안아산역은 언제든지 여객 수요에 따라 정차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역 무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46km)은 경부고속선(KTX)과 수서고속선(SRT) 합류 구간에서 선로 용량 포화로 병목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평택 남산 분기점부터 충북 오송역 구간 노선 지하에 복선전철을 하나 더 건설하는 사업인데, 2019년 KTX 천안아산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계획이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연계해 장래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KTX천안아산역 정차 필요성과 전 구간 지하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정부를 설득, 구난역 설치 확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기획재정부는 장대 터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천안아산역 하부에 구난역을 설치하되, 장래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분선로, 비상계단, 환기시설, 승강기 등 역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예산을 기존 2조9895억 원에서 1921억 원을 증액한 3조18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KTX천안아산역은 지상부 선로 용량이 부족해질 경우 매표시설, 통신 및 신호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의 역무 기능만 추가하면 여객을 취급할 수 있는 정차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천안아산역 지하역 설치로 구난 및 역사 기능 수행이 모두 가능해져 비상사태 발생 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 향상도 기대된다"며 "KTX와 SRT의 첫 합류점인 천안아산역이 향후 철도 교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세종시교육청,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종을 위한 사회적경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을 운영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을 희망하는 총 107학급(초 87, 중 8, 고 12)을 대상으로 공정한 분배? 공정한 분배!(초), 배워서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중), 윤리적이고 정당한 소비, 공정무역으로 실천해요(고) 등 학교급별로 주제를 나눠 운영한다.

교원,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협의회가 개발한 수업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과 분배 활동을 통한 공정한 분배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이해

하고, 중학교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개념과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소개를 통한 삶 속에서의 실천을 알아보고, 고등학교는 바나나 농장의 노동자, 농장 주인, 선적업자, 수입업자, 마트사장의 역할 토론으로 윤리적 소비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학습하게 된다.

이주희 교육협력과장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의 이해를 통해 인식 확산과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하는 민주시민 역량이 함양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보령시, 만세보령통합RPC 쌀 택배자동포장라인 구축 본격 가동

보령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판매량이 급증한 '삼광미 골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택배자동포장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10일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는 남포면 소재 만세보령통합RPC에서 김동일 시장, 박금순 보령시의회 의장, 김정섭 농협충남세종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포장라인사업 경과보고 및 사업설명, 택배용 쌀 자동포장 시연 등을 진행했다.

2013년 첫 출시 이래 우수한 품질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삼광미 골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택배 판매량이 2019년 1만 1683건에서 2020년에는 3만6261건으로 320% 증가했다.

이에 시는 유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만세보령통합RPC에 자동포장라인을 구축하고 로봇 1대를 지원하여 시간당 600박스의 포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고품질 보령쌀의 안정적인 유통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동일 시장은 "쌀 택배자동포장

라인 구축으로 질 좋은 삼광미 골드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과 관리로 통해 보령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광미 골드는 2015년과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로 선정된 바 있고, 2019년 충청남도 우수브랜드 쌀 평가 최우수 선정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김원호/기자



# 대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학부모·학생용 리플릿 배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을 위해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안내' 리플릿(학부모·학생용)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예방'리플릿에는 학업중단 우려를 중심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의 자료가 안내되어 있으며, 학업중단예방 고민해결 버스를 이용한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학업중단위기 학생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리플릿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전교육청 관내 위(Wee)센터 등에 총 3,200부를 배부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상담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양한 사유로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학교현장에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리플릿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 함께하는 감동 양주

# NEW & NEW

##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 성북구, 故 최만린 유족과 '작품 기증을 위한 협약식' 개최

### 한국 추상조각의 거장 故최만린(1935~2020) 작가의 주요 작품 등 443점과 자료 2,095건을 유족이 성북구에 무상 기증



서울 성북구와 故 최만린 유족이 '故 최만린 작품 및 자료 기증을 위한 협약'을 했다.

10일 성북구청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故 최만린 유족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근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故 최만린 유족과 성북구청이 각각 협약 주제 로 기증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故 최만린 작품 등 443점 및 자료 2,095건 무상 기증 ▲ 협약당사자 규정 ▲ 성북구립미술관 조례에 의거한 수증 ▲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발전을 위한 기증 작품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다.

故 최만린 작가는 생전에 작가의 가장 핵심적인 작품 126점을 성북구에 무상 기증한 바 있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 작가가 대부분의 주요 작품을 제작하던 정릉의 자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8월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인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을 개관하였다.

故 최만린 작가가 미술관 개관 직후 타계하면서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작가를 기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유족의 기증은 최만린미술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가의 뜻을 유족이 이어받아 실현하는 의미 있는 기증이다.

유족을 대표해 협약에 참여한 故

최만린 작가의 장남 최아사 님은 "보 다 많은 이와 작품을 향유하는 것이 예술가의 삶을 가장 바람직하게 기리는 것이라 판단해 아버님의 초기 작품부터 가장 최근 작품까지 故 최만린 작가의 예술세계를 망라하는 작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故 최만린 작가는 성북구에서 55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많은 공헌을 남겼다. 자치구 최초의 공립미술관인 성북구립미술관 건립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고 생전에 작품을 기증하면서 거주하던 자택을 성북구에서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한 결과로서 성북구립 최만린 미술관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미술관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예술가의 자택을 공공화한 가치를 인정받아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기증되는 작품 443점에는 이전 기증에서 부족하였던 후기 조각 작품과 작가가 중요시 했던 드로잉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작가미술관이 성장하기 위한 시대별 주요 작품이 갖추어지는 의미 있는 기증이다.

또한 기증 자료는 공공조각의 선구자였던 故 최만린 작가의 모형(마케트) 52점과 작가가 평생 정리하고 수집한 2,043건의 방대한 아카이브

를 포함하고 있어 작가 및 한국 근현대 조각을 다루는 연구기관으로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故 최만린 작가는 1935년생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으며 교육자로서 한국 미술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故 최만린 작가의 유족으로는 성우인 부인 김소원 여사와 남매가 있다. 첫째인 아들은 계원예술대학교 건축디자인과 최아사 교수이고 둘째인 딸은 연극배우 최아란이다. 탤런트 최불암과는 동서지간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성북구와 故 최만린 작가 유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며 향후 최만린미술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세계적인 작가미술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작품을 기증해 주신 유족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성북구 지역 근현대 예술가들의 가치정립과 보존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성북구는 지난 5월 12일 지역의 주요 작가인 故 서세우 유족과 작품 및 컬렉션 기증협약식을 개최하고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바, 지역의 주요 예술적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의미 있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 광명소방서, 구급대 소방사 박초영 코로나19 대응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광명소방서는 119구급대 소방사 박초영(32) 구급대원이 코로나19 대응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박초영 구급대원은 코로나19 전담요원으로 현장에서 확진 환자(의심환자)의 이송과 행정요원의 역할도 묵묵히 수행하는 등 최전선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박초영 구급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가장 가까이 접한다는 두려움, 보호복을 착용하고 구급활동을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차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서장은 "코로나19 대응 필수 요원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박초영 구급대원의 유공 표창 수상을 축하"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마지막까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순희/기자

#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국회 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인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가 주최 주관했으며 매년 한 해 동안 정치·사회·문화·예술 등의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주인공을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안숙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서초구의회 의장을 맡아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 왔으며, 제8대 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서초구민의 복지 향상과 소외계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김안숙 의장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곧 국가 발전을 위한 자치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동희/기자

# 서범수 의원, 울산 자치경찰위원회 민주당 독식 규탄 1인 시위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10일 울산시의회 앞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독식한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시·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당초 입법과정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어·야 1인씩 추천하는 취지'로 본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담아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이 2명의 추천 몫을 독식하면서 발생되었다. 총 7인의 울산시 자치경찰위원 중 민주당 후보였던 울산시장 1명, 진보진영으로 분류된 울산시교육감 1명, 민주당 시의원들이 2명을 추천하면서 민주당 진영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 여론으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범수 의원은 9일 울산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 관계자를 만나 문제를 지적하고 그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해왔던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의원들이 이어 민주당 단독 추천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동참했다.

서범수 의원은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하는 자치경찰위원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어떤 시민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의원들이 입법취지에 맞게 여야 합의의 취지를 갖고 위원 추천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노원구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의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한 시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관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확대로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이용에 편의를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편익 확대 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노원구 경춘

선 숲길 활성화를 위한 화랑로 육사삼거리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 △화랑대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릉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태릉입구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화랑대역 캐노피 설치 등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컬러블록 조성,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제도색, 과속경보표지판 등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중교통으로 관내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공릉역 총 세 곳의 지하철 역사의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승강편의 시설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함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익 확대에 큰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거버넌스 우수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중심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라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중심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 화성시의회 최정환 의원,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수상

화성시의회 최정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지난 10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의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평소 봉사,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했던 시상식이 연기되면서 화성시의회 의장이 대신 상장을 전달하였다.

최정환 의원은 지역 토박이 정치인으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내며 지역 환경문제와 도시계획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였는데, 평소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 개발의 당위성과 올바른 시정발전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화성시가 주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입법활동으로는 전국최초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방사건 사전고



지 조례'를 제정하여 민생 안전을 도모하였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포 시설이 인·허가 접수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우선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정치인이 아닌 봉사하

는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의회에 입성하였는데, 평소 애정심을 갖고 의정활동 펼쳐온 것을 인정받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구를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주민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남주/기자



# 청계천박물관, '도성제1의 다리, 광통교' 기획전 열려

전시실 속 광통교 교각을 따라 걸으며 광통교 관련 유물 관람

서울역사박물관(관장 배현숙)의 분관 청계천박물관은 조선시대 도성 내 제1의 다리였던 광통교 주변 도시공간 변화와 도성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도성 제1의 다리, 광통교' 기획전을 6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한다.

광통교는 조선 초 태종대 석교石橋로 개축되었으며, 궁궐과 승려문을 잇는 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성 제1의 다리'였다. 다리의 폭도 15m에 달하여 다리의 중요성을 말해 주며, 구 정릉貞陵의 병풍석 등 석물을 사용하여 작품성도 굉장히 높다. 아울러 일반 다리와 달리 난간까지 갖춰 안전하게 격식을 갖춘 다리였다.

이번 전시는 『어제준전명첩御製濟川題名帖』, 『어제준전명병소서御製濟川銘并小序』, 『경도잡지京都雜誌』 등 문헌자료와 '한양도' 등 시대별 지도, 회화자료, 근대 사진자료, 발굴유물, 복원사업 관련 문서, 보고서, 도면 등 총 80여점의 전시자료를 통해 광통교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변화 및 도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조선시대부터 2005년 복원된 현재까지 광통교의 모습을 조명한다.

특히, 18세기 후반 광통교 모습을 보여주는 회화자료인〈가교보월街橋步月〉과 2003~2005년 발굴조사에서 복원사업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실측 야장과 작업일지, 남측교대 신장상神將石 탁본 등 생생한 자료가 핵심 전시물이다.

전시 구성은 '1부. 광통방에 있던 큰 다리', '2부. 근대 공간으로의 변화', '3부. 다시 돌아온 광통교' 등 크게 3개 주제로 나뉜다.

광통교는 조선시대 도성 내 제1의 다리로 불렸다. 조선 태종 때 흙다리에서 돌다리로 개축하면서 태조 계비 신덕왕후 정릉貞陵의 석물을 사용하였다. 다리의 폭이 15m에 달하여 아주 넓었으며, 조각된 신장상神將像의 모습은 훌륭하였다.

조선후기 영조는 광통교에서 백성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막힌 물길을 여는 준전濟川을 실시하였으며, 상류 쪽으로 2칸을 넓혔다. 아울러 광통교는 도성 사람들에게 정월 대보름날 다리밧기의 장소로 성황을 이루는 도성 내 명소이자 시전市廛과 근대기 육교시사六橋社의 구성원

들이 활동하던 무대였다.

광통교가 위치한 인근 지역은 전차선로가 개설되면서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1899년 종로 ~ 남대문 구간 전차선로가 신설되면서 광통교 동편으로 전차선로가 놓이고, 1910년에는 복선화되면서 전차 통행을 위해 콘크리트를 부어 광통교는 사실상 도로 밑에 묻히게 되었다.

광통교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도성 내 중심가로 서점과 약방, 은행 등 상점과 회사들이 위치하였다. 회동서관匯東書館, 화평당약방和堂藥房, 중로양복점鍾路洋服店, 한성은행漢城銀行 등이 대표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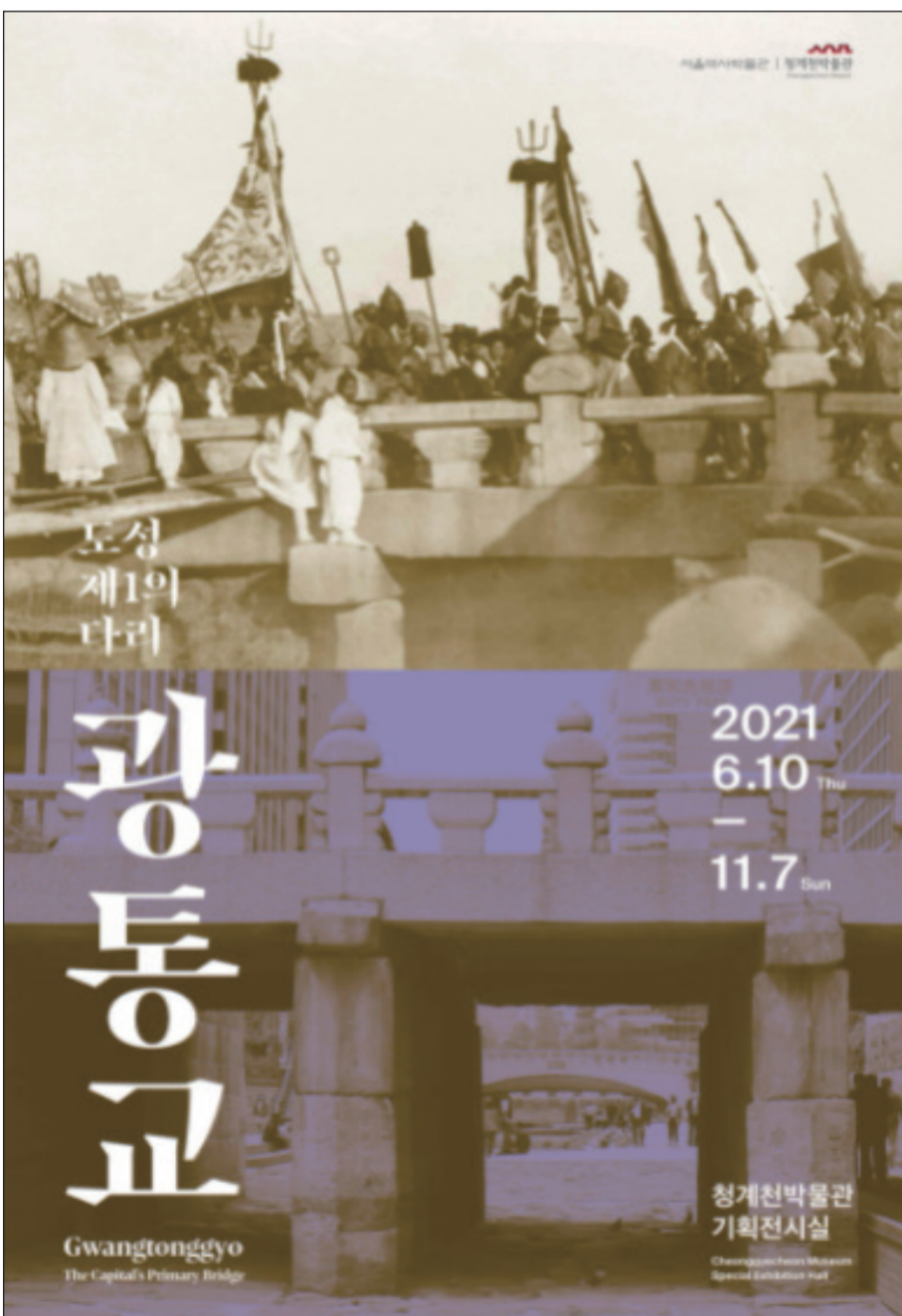
1958년 복개되어 도로 밑에 묻힌 광통교는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우선 발굴조사를 통해 원래 위치와 모습을 확인하고, 실측조사와 복원설계가 이루어졌다. 이후 복원공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문화재청,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과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결국 광통교는 발굴된 다리 부재와 난간 부재 등을 활용하여 원 위치에서 상류로 155m 이동한 현 위치에 복원되었다.

특히 '3부. 다시 돌아온 광통교'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발굴조사부터 실측, 설계를 거쳐 복원공사에 이르는 복원과정을 영상, 유물, 도면자료 등을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발굴된 부재 중 일부는 보강과 보존처리를 통해 사용하고 창덕궁에 보관중이던 광통교 난간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안전성을 위해 구조검토와 여러 시험을 거쳐 복원하였다.

이번 기획전시와 연계한 전시연계 강좌도 함께 마련하였다. 강좌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광통교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변화를 주제로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의 강의와 전시해설로 운영 된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코로나 19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 청년 예술인을 위한 댄스 오디션 개최!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중)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댄스 오디션 <OPEN FLOOR> 참가자를 오는 7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댄스 오디션 <OPEN FLOOR>는 경기아트센터가 추진하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춤에 있어서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오디션으로 만 15세부터 22세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디션 전 과정은 촬영되어 경기아트센터 영상 콘텐츠로 제작, SNS 플랫폼을 통해 송출 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경기아트센터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경기도 안성 소재) 기관협력 사업 일환이다. 지난 3월 업무협약 체결 후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동아방송예술대가 보유한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촬영 및 편집 등 공연예술 영상화 사업에 동아방송예술대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갖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

다. 오디션 지원은 지원자의 춤 영상을 개인 SNS계정에 업로드 후, 모집 공고글 또는 포스터에 첨부된 네이버폼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전송하면 된다.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 총 5명을 선발하며,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청년 예술인에게는 9월 '경기도문화의날' 공연에 오를 기회를 제공한다. 오디션을 진행하는 전 과정은 영상콘텐츠로 제작되어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작!tv 경기아트센터'(www.youtube.com/user/iloveggac)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유튜브 채널 '브릿지TV'(https://www.youtube.com/브릿지tv)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 이우중 사장은 "경기아트센터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좋은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며, "이번 <OPEN FLOOR> 댄스 오디션에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부산도서관 홍보대사에 전주연 바리스타 위촉

커피전문도서 컬렉션 및 북 큐레이션 등 커피와 도서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부산시는 6월 11일 오후 2시 부산도서관 모들락극장에서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인 전주연 바리스타를 '부산도서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전주연 바리스타는 2019년 4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 모모스커피에서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및 행사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고 있다. 또한, 부산여대 바리스타과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커피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커피산업 저변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부산도서관 홍보대사 위촉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임기 2년) 세계 최고의 커피 챔피언과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지향하는 부산도서관이 손을 맞잡고 상생 발전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위촉 당일 홍보대사와 도서관 직원 간 소통·협력 교육을 시작으로, ▲부산도서관 홍보영상 제작(6~8월) ▲커피전문

도서 컬렉션 및 북 큐레이션 진행(8~10월) ▲커피와 책을 주제로 하는 시민인문 아카데미 및 북 페스티벌(7~11월) 등을 차례대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부산도서관은 2020년 11월 개관한 이후 2021년 6월 현재까지 약 25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했으며, 시민들의 서재 역할은 물론 힐링 및 문화복합 공간 제공, 지역의 도서관과 서점·출판업계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력사업 시행 등 부산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국,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 주도하에 독서·휴식·문화·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전주연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부산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산도서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 여수시, 여섯 번째 웹드라마 '윤슬' 시사회 개최

여수시가 오는 16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여수관광 홍보 웹드라마 '윤슬' 시사회를 개최한다.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추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백제로 망명한 신라 진골 출신 해오랑과 백제 귀족 가문의 영애 별녀, 이를 질투하는 백제 무장 관우, 3명의 주인공들이 환생을 거듭하며 삼각관계를 벌이는 이야기이다.

'윤슬'은 45분 분량으로 총 5화로 구성되어 있다. 1화는 '인연의 굴레'로 과거 해오랑이 별녀에게 정혼하며 준 옥가락지를 현재의 은별(별녀)이 우연히 구입하게 되면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인연의 굴레가 시작된다.

계속되는 2화 '천년의 만남', 3화 '윤슬의 신령', 4화 '끝없는 사랑', 5화 '오대양의 보석'을 통해 두 주인공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코로나19로 뜨고 있는 비대면 관광지인 금오도 비렁길, 여수섬섬길, 가사리 갈대밭, 여자만 갯노을길, 낭도 장사금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여수의 관광지를 만날 수 있다.

시는 시사회 이후 유튜브 및 여수관광 SNS '힐링 여수야'를 통해 웹드라마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와 이모티콘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2015년부터 매년 웹드라마를 제작·발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여수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특히 2019년 '동백'이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황금극대상을 수상, 2020

년 '호점몽'은 아시아웹어워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여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시 관계자는 "웹드라마는 뉴미디어 시대에 여수의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명소를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적합한 최적의 콘텐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웹드라마 제작을 통해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슬'은 제7회 서울웹페스트(Kwebfest)에 출품해 27개국 300편 중 180편(국내 40편, 국외 140편)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시상식에서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 홍콩 인터내셔널 숏 필름 페스티벌, 미국 로스앤젤레스 씨네페스트에도 출품을 마쳤다.

김영만기자



## 사천시,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오페라 갈라콘서트'

대통령 조찬 연주회, 열린 음악회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실력과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오는 6월 24일 오후 7시 30분 사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지휘자 '서훈'이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소작농의 딸이 도둑 누명을 쓰고 처형된 후에야 까치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실화)을 바탕으로 한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 까치' 서곡으로 문을 연다.

오페라 '도둑 까치'는 은수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쓴 하녀의 이야기로 사 랑까지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작은북의 독주를 시작으로 씩씩한 행진곡으로 화려한 진행이 돋보이는 곡이다.

또, '구도, 오펜바흐, 푸치니, 생상, 모차르트, 롤프 뢰블란, 베르디, 에두아르도 디카푸아, 비제 프란체스코 사토리, 레하르 등 작곡가의 고전과 낭만, 현대를 아우르는 오페라 곡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사회자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오페라에 대해 잘 몰라도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김순영과 도희선,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양송미, 테너 손민호, 이사야, 바리톤 김종표, 오동국 등 총 8명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즐기기 어려운 상황인 요즘, 시민의 문화 감성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을 기획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천시에서 주최하고 사천문화재단에서 주관한다.

강영훈기자



# 2021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개최

### 미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세계 우수대학 참가 확정

부산시는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와 공동주관으로 '2021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이하 부산건축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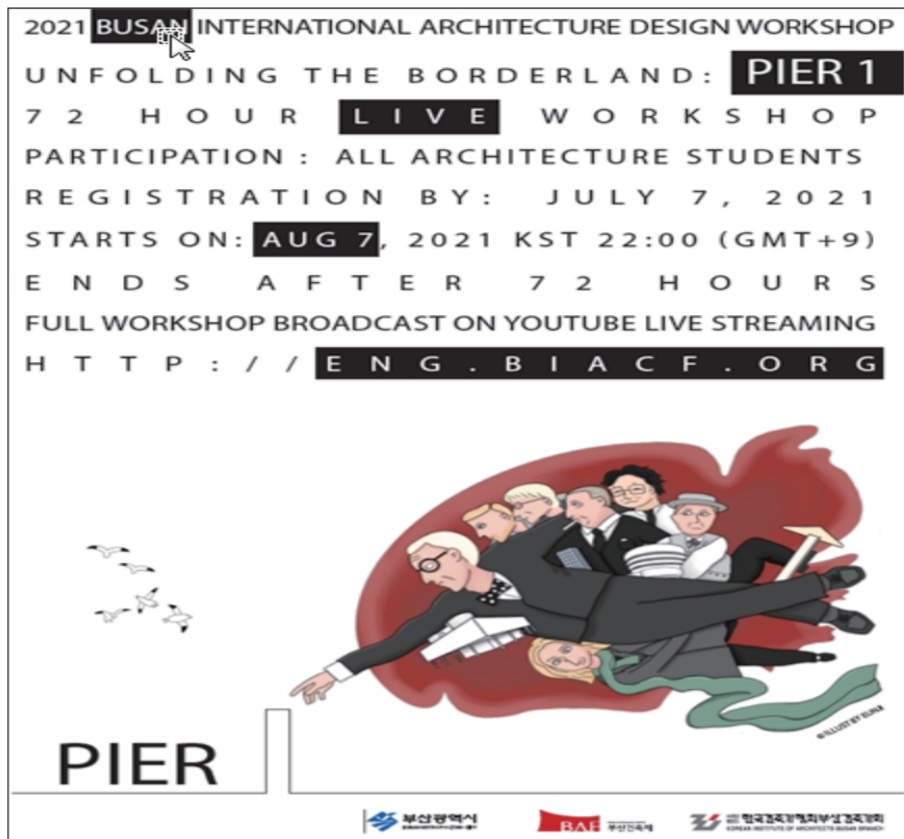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적 건축 행사인 '부산건축워크숍'은 2003년부터 매년 건축을 공부하는 9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부산에 모여 일주일간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통과 학습의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국내외 참가자가 한 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이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72시간 동안 국내외 참가자가 화상회의 프로그램 및 유튜브 라이브에 동시 접속하는 신개념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워크숍에 온라인이 가진 장점을 더함으로써 특강, 튜터링, 크리틱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제는 '제1부두: 부산개항 2021(Pier1\_Unfolding the borderland)'로, 참가자들은 북항 재개발에 따른 부산항 제1부두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일대의 문제점 파악에 건축적 대안을 제시한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부산시장상 ▲부산시의회의장상 ▲부산건축제 조직위원장상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장이 시상된다. 또한, 수상작품은 올해 부산건축제 행사 기간(11월 예정)에 전시될 예정이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목장은 "매년 열리는 부산건축워크숍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이 부산의 도시건축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부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건축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올해 비대면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 충청남도, '더이로운충남'...한국인기브랜드 대상 수상

### 충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더이로운충남'...매년 매출 증가

충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인 '더이로운충남'이 '2021 한국인기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한국인기브랜드는 소비자 관점에서 높은 품질을 제공, 브랜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하고 심사·선정하는 대회이다. 더이로운충남은 2017년 출시된 이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실제 학교급식 납품을 중심으로 2019년 100억 원, 2021년 1분기에 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더이로운충남의 판매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더욱 좋은 품질과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인천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드디어 착공

###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평구청까지 1.5km 구간

인천광역시시는 6월 11일 부평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의장, 이성만 국회의원, 차준택 부평구청장, 홍순욱 부평구의회의장과 부평구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번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치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킬로미터 구간으로 2023년 준공 시까지 총사업비 636억 원(생태하천복원 486억 원, 하수관로정비 150억 원)이 투입된다.

과거 굴포천의 물길은 인천가족공원묘지에서 발원해 한강까지 흐르는 인천의 대표적인 하천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복개되거나 오염된 상태에 있다가 2008년 부평구청에서 부천 경계까지 6.08km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부평구민 뿐 아니라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부평구청에서부터 상류구간은 아직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복개되거나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옛 물길을 잇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인천시 최초의 물길이음 사업이다.

시와 구는 소하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부평1동 행정복



지센터~부평구청 구간 하수도를 정비하고, 하천을 덮은 시멘트를 절거 해 물이 흐르게 바꾼다.

복원 구간은 관찰·탐방 등 생태·문화 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꾸며진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문화광장과 워터스크린 등을 조성하고, 백마교 상부에 완경사를 취 시민들이 물을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수식물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서식처도 마련한다.

옛 물길을 복원하는 물길이음 사업은 도시의 환경개선과 하천의 수질 개선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남기자

# 울산시, '한시 생계지원' 1만 5228세 대 신청

### '저소득 가구'조건 등 조사 후 지급 예정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만 5,228세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 조사를 거쳐 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대상자에게 5일간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업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한 가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지급은 2차로 나눠 1차 6월 25일, 2차 28일이며 금액은 가구당 현금 50만 원(계좌이체)이다.

울산시는 당초 1만 1,056가구를 예상하고 국비 5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상보다 4,17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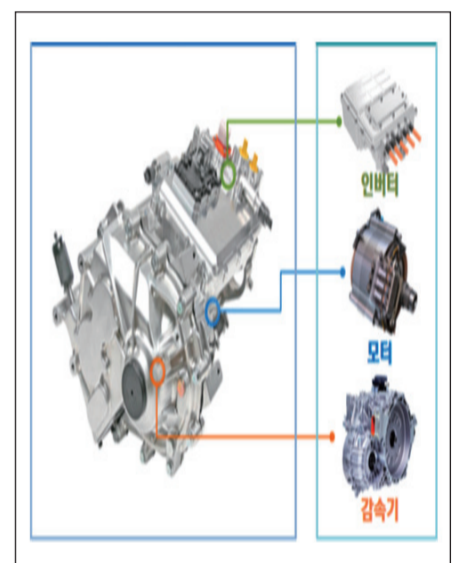
가 더 신청하여 국비 1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총 사업비는 시비 포함 69억 원 정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청에 따른 부족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대구시, 미래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에 국비 200억원 확보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장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장업'은 미래차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전환 유도·기술고도화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e-DS(e-Drive System)는 '모터·인버터 및 감속기 등 핵심모듈과 이를 구성하는 관련 부품'으로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차의 전기구동시스템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장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산·학·연 중심의 기업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맞춤형 기술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교육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전기구동시스템 핵심부품 산업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전기구동시스템 및 전·후방 부품산업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력 향상 지원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전문기업을 육성해 지역 자동차산업기반을 기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익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미래차 핵심부품인 전기구동시스템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 자동차기업의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기반 마련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경북도, 코로나19로 힘든 식품위생업소... 지원 나선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지난 6월 7일부터 신규유자지원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로 신고·등록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하며, 영업장소를 수리·개조·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설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

다. 업소별로 개인금융이용도와 담보 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업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융자지원 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희망)업소 5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 원, 식품접객업소 등 5천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 1천만 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업소별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부터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1994년부터 총 1,237개 업소에 38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20억 원에

산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식품위생업소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경기도, 산단계획 승인

경기도는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11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 2021-5097호)했다고 밝혔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산업 집적화 및 균형발전 등을 위해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 등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르면,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99만2천㎡ 면적 부지에 총 사업비 3,503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2023년까지 부지조성, 공원 녹지 등을 완료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계획보다 부지가 30만㎡ 더 늘어났고, 업종도 섬유제조업 등 6개 업종에서 식료품제조업 등 9개 업종으로 다양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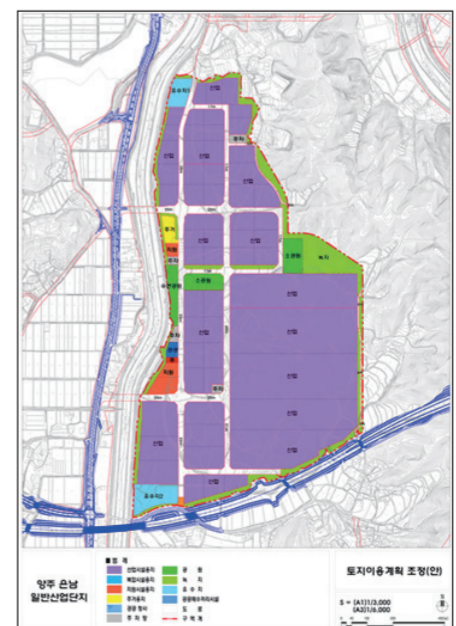
특히 식료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등 9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5,312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약 1조

99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통해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 서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안전한 '거리두기' 당부

서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 제도 상시 운영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 노후 석축정비로 수해예방 확보

팔달구는 관내 매교동 일원 수원천 석축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매교~새마을교~매세교 2차구간(257m) 정비사업을 6월초 완료하고 수해예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수년에 걸친 수원천 복원사업을 통해 매교에서 매교구간을 정비하여 시민의 품에 안겨 주었으나, 매교~새마을교~매세교 구간(832m)은 기존 석축이 노후되어 석축사이의 물탈 부분탈락과 토압에 의한 배부름현상이 발생되어 수해시 붕괴 위험이 항상 상존해 왔다.

이에 팔달구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2020년부터 특별조정교부금과 수원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작년에 매교~새마을교 좌안(109m)을 우선 정비하는 등 급근 4월부터 신속한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처럼 언차적인 정비로 낡은 석축을 철거하고 자립식옹벽을 설치하

여 하천제방의 여유 폭이 확장되어 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속에서 쾌적한 수원천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2022년까지 석축잔여구간도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생동감 있는 수원천의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 안산시 상록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 강화

안산시 상록구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금지 현수막 및 CCTV를 2대 추가 설치해 총 75대를 운영 중이며, 불법투기 감시단은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상록구는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고지서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문을 넣어 적극 홍보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당신의 양심도 버려집니다' 등의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무단투기 지역에 게시한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상록구를 조성하기 위해 구역별 분투 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주민들도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김천시,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합동 단속 실시

김천시 산림녹지과는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 근절을 위하여 주요 구간에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공원은 혁신도시전체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토바이(이륜차)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

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녹지과장은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적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외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공원관리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강원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 추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349개소)에 대한 무허가제품 판매여부 점검

강원도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동물약사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감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병원, 동물약국 349개소를 대상으로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합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시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이번 점검에서 관리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함

이동원기자



## 부산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긴급 점검 추진

부산시-지역건축사회 해체허가 공사장 중 표본점검, 구·군 해체계획서 전수점검 등 추진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재개발현장 내 5층 건축물이 해체작업 중 도로 쪽으로 전도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호тел 철거현장에서 시스템 비계가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긴급 합동점검을 펼친다.

이와 함께 각 구·군에서는 해체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점검하고, 규모 및 현장여건 등 고려해 현장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 여부 ▲안전통로 확보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와 응급조치를 동시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공사책임자 책임의식 부족, 도급관계, 짧은 공기로 인한 안전관리대응 인력 최소화 배치 등에 있다고 본다"며,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 대응방안이 요구되며, 일례로 철거현장의 감리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 한분 한분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진정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시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전수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제 오후 신금로(운천천) 빗물 펌프장 신설 현장,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현장, 초량제1차하차도, 범일2지구(동천)침수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살피고 안전여건 등을 확인했다.

남궁영기자

## 평택시, "함께하는 클린평택" 현재진행형



평택시는 '함께하는 클린평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약 배출지 불법배출 단속 강화, 국토대청결운동, 클린기동대 확대 운영, 클린존 및 무단투기 예방용 스마트경고관(CCTV) 및 로고라이트 설치 등 쓰레기 무단투기 최소화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5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과태료 부과 83%,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11%가 증가했다.

시는 취약 배출지 불법배출 단속 강화 차원에서 지난 4월 읍면동별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121개소를 선정, 5월에는 계도 및 홍보활동 실시, 6월에는 집중단속중이며, 상습투기지역 쓰레기는 읍면동 유관단체와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

김남주기자

## 진도군, 하절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위생점검 실시

진도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절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축산물 부패·변질 우려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와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의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읍·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 40개소에 대해 식육·부산물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위생교육 이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와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

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여름철은 기온·습도가 높아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높는데다 휴가철은 식육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위생 점검과 홍보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호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 현장 13곳 긴급 안전 점검 나선다

광주 동구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재개발 철거현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재개발구역 내 13개소 인허가 철거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반을 꾸리고 주말을 포함,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차량 안전통행 위한 안전거리 확보 여부 ▲감리자 수행실태 점검 ▲주변 통행 및 보행자 안전 관리 적정 상태 ▲비계 및 안전 시설

물 적정 설치 여부 ▲유도원 및 안내원 배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하자 발견 시에는 공사 중지와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책임 의식을 갖고 안전 수칙과 관계 법령 준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대화의 희열3' 박지성, 스스로 만든 "꿈★은 이루어진다 인간판"



'대화의 희열3' 박지성은 스스로 '꿈은 이루어진다'를 만들어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 지치지 않는 두 개의 심장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온 국민의 심장을 뜨겁게 만든 주인공.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이 6월 10일 방송된 KBS 2TV '대화의 희열3'(연출 신수정) 네 번째 게스트로 나와, 그가 뛰어난 축구 역사를 펼쳐냈다. 박지성의 정식 TV 토크쇼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지성이 영광을 얻기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되짚으며 대화를 나눴다. '영원한 캡틴'으로 기억되는 박지성이지만, 국가대표 이전의 그는 눈에 띄는 이력의 선수는 아니었다고. 무명이었던 박지성에게 '국가대표 자격 논란'이라는 사람들의 의심도 따랐다. 박지성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실력을 증명하려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 레전드골을 터뜨

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이러한 박지성의 축구 인생에 히딩크 감독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힘들어하던 박지성에게 히딩크 감독은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해줬다고.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이) '너는 정신적으로 훌륭한 선수이기에, 유럽에서 뛠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다. 그저 그런 선수인 저에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 말을 굳게 믿고 노력한 박지성은 실제로 히딩크 감독의 손을 잡고, 첫 유럽 무대를 밟았다. 당시 백지수 포 계약 제안도 받았지만, 박지성은 "(히딩크가 있는) PSV 아인트호벤이기에 고민을 하나도 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 실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박지성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첫 슬럼프를 겪게 됐다. 박지성은 "처음으로 축구를 하는게 무서웠다"라며, "내게 공이 오면 홈팬들의 야유가 시작됐고, 공이 떠나면 야유가 끝났다.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박지성의 슬럼프 극복 방법은 모두를 몽롱하게 했다. 박지성은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했다. 공을 받아 열 선수에게 짧게 패스한 것 가지고도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잖아'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몰랐던 박지성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낸 그의 긍정적인 마음은 팬들의 야유를 함성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만을 위한 응원가 '위승패라'가 울려 퍼지게 된 것이다. 박지성은 과거 감독으로부터 꿈의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 제안을 받게 됐다. 그는 "경기를 못 뛰고 허숨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했다"라며 비하인드를 밝혔다. 그는

'유니폼 팔이'라는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말했다. 그는 "내가 맨유에 온 건 PSV에서의 활약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편견을 빨리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꿈을 이루어 낸 박지성의 이야기는 큰 감동과 울림을 전했다. 야유와 우려를 떨쳐낸 박지성의 강한 정신력은 지금의 박지성을 있게 했다. 박지성은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가 되어 후배들의 길을 닦았고, '해버지(해외축구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으며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그리고 이날 방송에서는 박지성 보다 이전, 유럽에 먼저 대한민국을 알린 전설 '차범근', '갈색 폭격기' 차범근이 등장해 환호를 받았다. '대화의 희열' 사상 최초 두 명의 게스트가 출격한 것. '해바라지(해외축구의 할아버지)' 차범근과 '해버지' 박지성의 등장에 자연스럽게 '손세이셔널' 손흥민에 대한 언급도 뒤따랐다. 축구 팬들 사이 화제를 모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중 누가 최고냐" '차박손' 순위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차범근은 "아내는 차범근, 박지성 합해도 손흥민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1위는 손흥민, 2위는 월드컵 4강 신화를 해낸 박지성을 뽑았다. 이어 "난 타이틀이 없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박지성은 "저는 차범근 감독님이 1위, 2위는 손흥민이다. 흥민이는 아직 선수 생활이 남아 있으니 1위가 되길 바란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두 레전드의 등장으로 '축구의 희열'을 만든 '대화의 희열3'에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도 쏟아졌다. 축구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 시간이었다. 차범근, 박지성과의 두 번째 대화는 다음 주에 이어질 예정이다. KBS 2TV '대화의 희열3'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40분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 '놀면 뭐하니?' 유아호, MSG워너비 데뷔 팀 X 활동 곡 공개! 후보 곡 듣자마자 일동기립!



MBC '놀면 뭐하니?' 유아호가 MSG워너비의 데뷔 팀과 활동 곡을 공개한다. 지난 방송에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 나일부터 'Timeless' 박근태 작곡가 등이 참여한 3개의 후보 곡이 공개된 가운데, 유아호의 '톱10귀'를 사로잡은 곡은 무엇인지, 또 MSG워너비 멤버들이 어떤 팀으로 활동하게 될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오는 12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연출 김태호 윤혜진 김윤집 왕중석 작가 최혜정)에서 유아호가 MSG워너비 멤버들에게 데뷔 팀과 활동 곡을 공개한다. 지난 방송에서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 나일, 'Timeless' 박근태 작곡가 등 '히트메이커' 작곡가들의 데뷔 후보 곡이 일부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이어 MSG워너비 한정판 앨범 발매 소식까지 전해지며 이들의 데뷔 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상케 만들었다.

이번 주에는 유아호가 3개의 후보 곡 중 자신의 '톱10귀'를 사로잡은 곡을 MSG워너비 멤버들에게 공개한다. 당시에 MSG워너비 멤버들은 후보 곡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상황. 전주가 시작되자 멤버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환호하며 일동 기립했고, 곡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민

현유주/기자

# '이미테이션' 정지소-이준영, '비밀 만남' 발각 1초 전! 초밀착 투샷 포착!

KBS2 '이미테이션' 정지소와 이준영의 비밀 만남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긴장감을 높인다. KBS 2TV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감독 한현희/작가 김민정, 최선영/제작 히든시퀀스/기획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BS) 축이 6회 방송에 앞서 11일(금), 정지소(마하 역)와 이준영(권력 역)의 만남이 발각 위기에 놓인 일촉즉발 현장 스틸을 공개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지난 방송에서 권력은 하루 종일 마하만 생각하며 그녀에게 폭 빠져 있는 예비 사랑꾼 면모로 시청자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결국 권력은 불건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마하를 직접 보기 위해 그녀의 집에 한달음에 달려가 시청자들을 심공하게 만들며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에서 정지소와 이준영은 가까이 밀착한 체뭉을 숨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지소는 당혹한 표정과 함께 행여나 압박으로 소리가 새어 나갈까 스스로 입을 막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한발 가까워진 정지소와 이준영의 관계를 엿보게 한다. 이어진 스틸에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임나영(현치 역)과 민서(리아 역)의 모습이 담겨 시선을 모은다. 밤늦게 혼자 외출한 정지소를 찾아 나섰던 두 사람이 뜻밖의 상황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린 것. 두 사람은 앞서 '삭스' 팬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힘들어하던 정지소를 지켜보며 이준영과의 영화 촬영을 걱정했던 바. 더욱이 정지소가 이준영과의 인연을 계속 부정해왔던 만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임나영과 민서에게 들릴 것인지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KBS2 '이미테이션' 제작진은 "정지소와 이준영의 거듭된 만남에 팬덤과 팀 멤버, 매니저 등 수많은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

을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지 원작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첫 연재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8억뷰 돌파,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404만 명 돌파, 카카오페이지 최대 팬덤 IP 누적 댓글 60만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K-웹툰으로 북미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삭스, '성장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신입사관 구해령', '솔로몬의 위증'을 연출한 한현희 감독과 김민정, 최선영 작가가 의기투합해 아이돌 세계를 더욱 흥미롭고 탄탄하게 그려내며 '원픽 뮤직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KBS2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은 아이돌 100만 연예고시 시대에 맞춰 진짜를 꿈꾸는 모든 별들을 응원하는 아이돌 현정서. 오늘(11일) 밤 11시 20분에 6회가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 '미치지 않고서야' 문소리, 칼춤 추는 인사팀장 완벽 빙의! 눈빛으로 제압하는 고수의 향기

'미치지 않고서야' 문소리가 칼춤 추는 인사팀장을 화끈하게 그린다. 오는 23일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수목 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극본 정도윤, 연출 최정인, 제작 아이윌미디어) 측은 11일, 지독한 근성의 인사팀장 '당자영'으로 완벽 빙의한 문소리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임원 승진을 위해 악착같이 버티는 그의 과묵한 오피스 생활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미치지 않고서야'는 격변하는 직장 속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n년 차 직장인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그린다. 직장인이자 한 번쯤 고민할 법한 '회사'와 '이직'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해고'까지, '짜만(짜에서 나오는 바이브)' 다른 '직장'의 어지러운 생존담이 색다른 공감과 웃음을 선사한다. 여기에 정재영, 문소리를 비롯해 이상엽, 김가은, 안대상, 박원상, 박성근, 김남희, 차정화, 조복래 등 연기 고수들이 총출동해 리얼리티를 더해 완성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독보적인 필모그래피를 채워온 문소리의 새로운 변신에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문소리는 위키홀릭 인사팀장 '당자영'으로 분해 현실 공감을 선사할 전망이다. 당자영은 사내 임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신입 시절부터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앞만 보고 달려온 인물. 하지만, 팀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곳에서 웬수같은 전남권 한세권(이상엽 분)과 인사팀 경험이 전무한 22년 차 개발자 최만석(정재영 분)을 부하 직원으로 맞으며 험난한 오피스 전쟁의 2라운드를 맞는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뿜내는 인사팀장 당자영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직원들 관리는 물론, 회사의 말도 안 되는 지침에 육박하기는 것은 심상. 쏟아지는 불만과 각양각색의 황당한 민원들을 처리해야 하는 인사팀의 하루는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하다. 하지만 '인사'의 달인' 당자영은 좀처럼 흔들리는 법이 없다. 차분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최재은/기자

# '펜트하우스3' 최예빈, 냉정함 속 느껴지는 애잔한 슬픔! 그녀에게 무슨 일이?!

'펜트하우스3' 최예빈의 눈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1회 방송 이후 또 한번 화제를 모은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에서 하은별 역을 맡은 최예빈의 모습이 담긴 스틸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펜트하우스3'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이다. 공개된 스틸 속 최예빈은 사슴 같은 눈망울로 눈길을 끈다. 여기

에 차갑고도 매서운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가 하면, 눈물 가득한 두 눈은 애잔한 슬픔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얼마 전서진(김소연 분)으로 인해 하루도 편안하게 산 적이 없었던 하은별이 시즌3에서는 어떠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한편,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 [KLPGA 2021 엠시스퀘어-군산CC 드림투어 6차전] 김윤교, 연장 접전 끝에 3년 7개월만의 드림투어 우승 이뤄!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 컨트리클럽(파72/6,383야드)의 전주(OUT), 익산(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1 엠시스퀘어-군산CC 드림투어 6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800만 원)'에서 김윤교(25)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년 7개월만의 드림투어 우승을 이뤄냈다.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김윤교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선보였다. 1라운드에서는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골라잡아 공동 5위에 자리했고, 2라운드에서는 3개의 보기가 나왔지만, 버디 9개와 더불어 홀인원까지 잡아내면서 중간합계 15언더파 129타를 기록하며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이했다.

최종라운드에서도 김윤교의 샷은 뜨거웠다.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속아낸 김윤교는 최종합계 21언더파 195타(65-64-66)라는 놀라운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김윤교에 1타 뒤진 채 공동 2위에 오른 구래현(21)이 최종라운드에서 이글을 앞세워 7언더파를 몰아치면서 김윤교와 동타로 경기를 마쳐 우승 트로피의 향방은 연장을 향했다.

치열할 것 같았던 김윤교와 구래현의 승부는 연장 첫 번째 홀에서

희비가 갈렸다. 구래현이 약 5미터 정도의 버디 찬스를 아깝게 놓치고 파를 기록한 반면, 김윤교는 어려운 경사의 8미터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윤교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 2017년 열린 'KLPGA-Volvik 드림투어 왕중왕전 2017'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며 두 배의 기쁨을 맛봤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를 따라간 골프 연습장에서 흥미를 느끼고 본격적으로 채를 잡은 김윤교는 2014년 11월에 열린 '2014 KLPGA 정회원 선발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리며 정회원으로 입회했다. 우승은 없었지만 2015년부터 드림투어에서 활동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김윤교는 2017년 첫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정규투어에서 활동했다.

올 시즌 정규투어 시드순위 확보에 실패한 김윤교는 지난 5월 열린 '롯데 오픈 켈리파인 토너먼트'에 출전해 8위를 기록하면서 '롯데 오픈' 출전권을 확보한 뒤 본 대회에 출전해 29위라는 좋은 성적을 만들어 냈고, 그 기세를 몰아 이번 시즌 처음 출전한 드림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김윤교는 "사실 작년에 퍼트 때문에 고생하면서 정규투어 시드순위 전도 기권하고, 골프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했었다. 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말해 주신 덕분에 골프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솔직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윤교는 "긴 러프, 빠른 그린 등 어렵게 세팅된 롯데 오픈 마

지막 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공식 대회에서 생애 첫 홀인원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덧붙였

다. 생애 첫 연장에서 긴장감을 극복하고 이겨 낸 김윤교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세운 목표는 최대한 많은 대회에 출전하고 꾸준히 잘 플레이하는 것이었다. 이번 우승을 통해

남은 모든 드림투어 대회에 나갈 수 있으니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서 상금순위 20위 안에 들어 정규투어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해 지난 4월에 열린 'KLPGA 2021 XGOLF-백제CC 썬프투어' 1, 2차전 연속 우승을 일궈내며 대형 신인의 탄생을 예고한 국가대표 출신 이예원(18,KB금융그룹)이 최종합계 20언더파 196타(66-66-64)로 흥진영2(21)와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9시즌 드림투어 상금왕 출신이자 지난 3차전 우승자 황예나(28)는 2라운드까지 14타를 줄여내며 시즌 2승을 노렸지만, 최종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는 데 실패하면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65-65-73)로 공동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지난 4차전 우승자 박단우(26)는 11언더파 205타(66-68-71)를 쳐 공동 11위에 자리했고, 5차전 우승자인 권서연(20,우리금융그룹)은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71-68-72)로 공동 67위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드림투어의 다양한 기록이 세워져 눈길을 끈다. 가장 먼저 이선영2(21)가 1라

운드에서 9언더파 63타를 몰아치며 군산 컨트리클럽 전주, 익산 코스의 코스레코드를 세웠고, 지난해 열린 'KLPGA 2020 군산CC 드림투어 10차전'에서 정세빈이 세운 54홀 최소 스트로크 우승 기록(16언더파)은 김윤교에 의해 경신됐다.

엠시스퀘어와 군산 컨트리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6월 21일(월) 19시부터 녹화 중계된다.

[우승자 김윤교 홀별상황]

- 1번 홀(파4,372야드): D-140Y 8i-핀 앞 4M 1퍼트 버디
- 4번 홀(파3,163야드): 8i-핀 우측 3M 1퍼트 버디
- 6번 홀(파4,353야드): D-120Y 9i-핀 앞 3M 1퍼트 버디
- 15번 홀(파4,374야드): D-130Y 9i-핀 좌측 6M 1퍼트 버디
- 16번 홀(파4,354야드): D-100Y 48도웨이-핀 앞 2M 1퍼트 버디
- 17번 홀(파3,160야드): 6i-핀 좌측 5M 1퍼트 버디

[우승자 김윤교 연장상황]

- 18번 홀(파4,360야드): D-90Y 52도웨이 컨트롤샷-핀 뒤 8M 1퍼트 버디

김현태/기자

## 김천상무 TMI · 다양각색 선수들의 최애 음식은?

김천상무는 매주 목요일, 베일에 싸인 선수들의 TMI(Too Much Information)를 날날이 파헤치는 팬프렌들리 '김천상무 TMI'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자료는 선수들이 직접 답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네 번째는 최애 음식이다.

먼저 강지훈은 달라진 식성을 공개했다. 강지훈은 "민간인 일 때는 소고기, 양고기 같은 고기류를 좋아했는데 군대에 와서는 라면이 가장 좋다. 경기 후 끓여먹는 라면이 부대 내에서는 가장 스태미나 음식이다"고 전했다.

정현철과 오현규는 극과 극 취향을 전했다. 정현철은 "호텔 조식을 가장 좋아한다. 아침 구부 튀고 먹는 호텔 조식이 최고다. 아침부터 열심히 튀고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말했다.

오현규는 "어머니 집밥이 가장 맛있다. 어디에 가든 가장 생각한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대단해서 항상 먹을 때마다 놀랍다"며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맛있어서 1등을 뽑을 수가 없다"며 집밥을 꼽았다.

김동민, 박지민은 모두 '고기'를 꼽았다. 김동민은 "뼈 해장국이 가장 맛있다. 좋아하는 고기가 들어가 있고 고기도 부드러워서 좋다. 또, 얼큰한 국물이 들어가 있어서 속을 달래는데 좋다. 겨울철에 먹으면 진국이다"고 말했다. 박지민은 "육류, 돼지고기, 오겹살을 좋아한다. 맛과 식감이 예술"이라고 짧고 굵게 전했다.

마지막으로 허용준은 "튀거를 가장 좋아한다.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튀거는 여러 소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사실상 최종예선 진출' 벤투 감독 "마지막까지 최선"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번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국가대표팀은 9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슬리랑카와의 2차예선 경기에서 5-0 승리를 거뒀다. 4승 1무 승점 13점으로 H조 단독 선두가 된 한국은 사실상 조 1위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패하지만 않으면 된다.

경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은 "최종예선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다"면서도 2차예선 마지막 경기인 레바논전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의 선발 라인업을 구축해 승점 3점 얻기 위한 경기를 치를 것"이라며 담담히 좋은 경기력과 승리를 다짐했다.

-경기 소감은?  
승리에 만족한다. 지난 경기와 포메이션은 같지만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다. 선수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열심히 임해줬기에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A매치 기간과 이번은 다르다. 세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에 비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다. 선수들의 회복을 위해 출전 선수를 많이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한 마지막 경기 키오프가 낮 시간(오후 3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했다.

-김신욱과 황희찬의 조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팬들은 전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상대보다 강팀이기에 상대를 압도할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전반적으로 활약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수들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경기에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정상번에 대한 평가는?

이 선수는 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활약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제 첫 소집과 첫 경기를 치른 것이다. A대표팀에서 첫 결승을 땀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속팀에서의 활약과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A대표팀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남태희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특정 선수에 대해 평가하



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 남태희의 활약은 이번 경기나 지난 경기 모두 좋았다고 생각한다. 선수 개개인의 출전 여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변수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선수의 경기력이나 태도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 어떤 전략으로 팀을 운영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K리그의 젊은 선수들이 기용돼 활약했는데 어떻게 봤는가?

A대표팀에 들어오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나이는 상관없다. 선수의 능력, 기술, 스타일을 본다. 이동경, 송민규, 정상빈은 모두 각기 다른 포지션에서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다. 송민규, 정상빈은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고 있다. 이동경은 원하는 만큼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는 않지만, 세 선수 모두 분명 뛰어난 선수들이다.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라 생각해 소집했고, 다음 소집 때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H조 선두가 확정됐는데, 레바논전에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레바논전을 치르기 위한 최상의 선발 라인업을 구축하고, 승점 3점 얻기 위해 경기를 치를 것이다. 이 경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기 통해 우리 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예선 진출을 사실상 달성한 상황인 것은 맞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하는 것은 부담 후 체임인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이 경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많다고 생각한다. 어떤 열정을 갖고 경기를 치를지 지켜봐 달라.

-허용준 감독을 위한 추모 행사와 골 세리머니를 지켜본 소감은?

상당히 슬픈 순간이었다. 이번 경기를 허용준 감독에게 바치고자 했다.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정말로 이 경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축구계와 유족분들에게 분명 힘든 시간이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한국축구계와 유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순희/기자

## 장슬기 "일주일 소집 훈련, 짧지만 반가워"

"짧게나마 소집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장슬기(인천현대제철)가 일주일간의 여자 국가대표팀 훈련에 반가움을 표했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8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있었던 도쿄 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이후 약 두 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여자 국가대표팀은 울 하반기에 예정된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을 준비한다.

중국과의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한 골차 패배로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의 쓴잔을 마신 여자 국가대표팀이다. 장슬기는 "중국전 이후 마음을 잘 추스르고 다시 소집할 수 있어서 좋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짧게나마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1, 2차전에 모두 풀타임 출전했던 장슬기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패배 후 며칠간 힘들었지만 WK리그 일정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속empt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A매치에 2013년 데뷔한 장슬기는 현재 만 27세가 돼 절정의 기량으로 여자 국가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어느덧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의 역할을 하게 된 장슬기는 이번 소집 훈련을 통해 새롭게 혹은 오랜만에 합류한 선수들에 대해 "기존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무척 기대가 된다. 나 또한 선수들이 팀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현유주/기자

## 오랜만에 국내 팬들과 만나는 김학범호 "즐거움 선사하고자"

가나와의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은 오랜만에 갖는 국내 공식경기로 설렘이 가득하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은 지난달 31일부터 제주 서귀포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 중이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막바지 관문으로서 12일(토)과 15일(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두 차례 평가전을 갖기 위해서다. 남자 올림픽대표팀이 국내에서 공식경기를 갖는 것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남자 국가대표팀과의 스포셜매치만 치렀다.

김학범호의 두 스트라이커 오세훈과 조규성(이상 김천상무)은 오랜만에 갖는 국내 공식경기에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10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조규성은 "오랜만의 국내 평가전이다. 정말 오랜만에 팬들과 만나려는 만큼 팬들 앞에서 좋은 경기로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세훈 역시 "공격수인 만큼 골로써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나와의 두 차례 평가전은 남자 올림픽대표팀 선수들에게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최종 엔트리 18명(와일드카드 3장 포함)에 들어가기 위해 각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포지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오세훈과 조규성도 마찬가지다. 삼무축구단 선수로 사 이기도 한 둘은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는 다짐이다.

오세훈은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 나는 등을 지는 플레이나 몸싸움, 헤더에 자신이 있다. 전방에서 공을 소유하는 부분에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규성은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은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답했다.

올림픽 참가에 대한 열의는 둘 모두 같다. 오세훈은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다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팀을 위해 희생하는 선수가 되겠다"면서 "금메달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규성 역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한다. 역시 금메달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최만식/기자



최만식/기자



#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http://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